

전략연구 2022-0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이관률 · 도묘연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연구 요약

1. 필요성과 목적

21세기 들어 세계은행(World Bank)과 UN(United Nation)을 포함한 국제기구, 그리고 유럽연합(EU) 등은 국가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적 의제로 사회포용을 설정하였다. 세계은행은 사회포용(social inclusion)을 극심한 빈곤을 끝내고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천명하였다. 유럽연합과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사회포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경제·사회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 저성장과 불평등, 그리고 지방소멸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고,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에서 5번째이다. 따라서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사회 내 포용이 더욱 중요하다. 충남의 경우 귀농·귀촌 인구 및 가구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및 그들의 자녀 등 외국인 주민의 유입 등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은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인구와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동시에 다문화사회로 진입이 가시화되어 사회적 이질성이 높아지는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발전의 새로운 수단으로써 사회포용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15개 시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긍정적 관계를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한다. 셋째, 사회포용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정책 수립과 운영원리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차원의 사회포용 실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사회포용의 관점에서 지역정책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은 외부포용 보다 내부포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포용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포용은 인구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의 다수 지역이 최근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외부포용이 순이동을 촉진시키는 반면, 내부포용이 순이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출생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외부포용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내부포용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는 오히려 인구유출을 더 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제고되어야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포용은 GRDP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포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사회포용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 및 외부포용이 고용과 GRDP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경제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이 지역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내부포용은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포용은 공동체의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충남의 사회통합을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포용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외부포용의 개선이 더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3. 정책제언 및 한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의 사회포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포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포용 정책에서 외부포용이 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외부포용이 순이동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내부포용이 순이동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포용을 증진해 사회적 인구증가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포용은 GR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약자가 경제주체로 정상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경제분야의 개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포용만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사회조사를 활용해 사회포용을 파악하였다. 충남사회조사에서는 개별 응답자의 포용이 아닌 해당 지역의 포용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응답을 통해 사회포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포용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포용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포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사회포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충남의 사회포용 정책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사회포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내부포용과 외부포용 중 어떤 포용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4
1. 사회배제와 사회포용	4
2. 사회적 약자와 포용적 태도	7
3. 사회포용과 지역발전	11
4. 선행연구의 검토	21
제3장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24
1. 분석자료	24
2. 분석방법	28
3. 분석모형	29
4. 분석자료의 일반특성	31
제4장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33
1. 사회포용의 개념화	33
2.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차이	37
3. 지역별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41
4.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49
5.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57
제5장 결론	59
1. 연구요약	59
2. 향후과제	60
부 록	62
참고문헌	69

표 목 차

〈표 1〉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3
〈표 2〉 충남사회조사의 사회포용 조사항목	25
〈표 3〉 패널회귀분석의 변수 구성	29
〈표 4〉 분석변수의 평균값과 산정식	30
〈표 5〉 충남 사회포용의 일반특성(2017~2021)	32
〈표 6〉 충남 사회포용의 개념 구분	34
〈표 7〉 충남 사회포용의 개념 간 상관성	35
〈표 8〉 충남 사회포용의 차이분석(paired t-test)	36
〈표 9〉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38
〈표 10〉 지역별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42
〈표 11〉 지역별 내부포용 실태와 변화	44
〈표 12〉 지역별 외부포용 실태와 변화	47
〈표 13〉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인구증가	51
〈표 14〉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경제성장	52
〈표 15〉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사회통합	54
〈표 16〉 분석결과와 종합	56
〈부표 1〉 지역별 여성의 포용 수준	62
〈부표 2〉 지역별 아동·청소년 포용 수준	63
〈부표 3〉 지역별 노인 포용 수준	64
〈부표 4〉 지역별 장애인 포용 수준	65
〈부표 5〉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포용 수준	66
〈부표 6〉 지역별 결혼이주민 포용 수준	67
〈부표 7〉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포용 수준	78

그림 목 차

[그림 1] 사회배제의 개념	5
[그림 2] 포용의 발전단계	10
[그림 3] 사회적 약자의 포용과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의 관계	13
[그림 4] OECD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19
[그림 5] 최근 5년간 사회포용의 변화(2017~2021)	39
[그림 6] 사회포용의 지역차이	40
[그림 7] 최근 5년간 지역별 사회포용의 변화(2017~2021)	43
[그림 8] 최근 5년간 지역별 내부포용의 변화(2017~2021)	45
[그림 9] 최근 5년간 지역별 외부포용의 변화(2017~2021)	48
[부도 1] 최근 5년간 여성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62
[부도 2]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63
[부도 3] 최근 5년간 노인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64
[부도 4] 최근 5년간 장애인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65
[부도 5] 최근 5년간 외국인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66
[부도 6] 최근 5년간 결혼이주민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67
[부도 7]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68

제1장 서론

21세기 들어 세계은행(World Bank)과 UN(United Nation)을 포함한 국제기구, 그리고 유럽연합(EU) 등은 국가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적 의제로 사회포용을 설정하였다. 세계은행은 사회포용(social inclusion)을 극심한 빈곤을 끝내고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천명하였다. 유럽연합과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사회포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경제·사회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유란희외, 2020). 이미 1980년대와 1990년대부터 사회포용은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 사회적 연대가 쇠퇴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사회포용은 세계화로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원화된 사회임에도 성별, 연령,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사회권 혹은 시민권의 재정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신유리외, 2013).

특히 최근 저출산과 인구감소, 저성장과 불평등, 그리고 지방소멸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박건영외, 2020). 충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고,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5번째이다. 따라서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사회 내 포용이 더욱 중요하다. 충남의 경우 귀농·귀촌 인구 및 가구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및 그들의 자녀 등 외국인 주민의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은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경우 외국인 주민(외국인 등록을 한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은 2016년 9만5553명(4.5%), 2017년 10만4854명(4.8%), 2018년 11만7094명(5.4%), 2019년 12만7057명(5.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의 이질화 및 다양화는 사회포용을 통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플로리다(Florida)에 의하면, 성장하는 지역은 3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을 가지고 있다(이길태, 2002; 이원종외, 2008). 여기서 관용은 “단순한 공감의 감정을 넘어 타인을 나와 동등한 가치의 개인으로

대응”하는 사회포용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은재호외, 2019). 보헤미안 지수(bohemian index)와 게이 지수(gay Index) 등을 분석한 플로리다는 하위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한편 역사적으로 사회포용이 높은 지역은 성장해 왔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퇴하거나 낙후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북부지역이 발달한 반면,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 이유를 남부지역(No go zones)의 흑인차별 문화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가 강소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소수민족을 받아들인 포용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포용은 국가 및 지역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사회포용에 대한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주로 포용 성장 및 포용성 지수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정책적 개념으로서 포용은 포용 성장이 함의하듯이 빈곤,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소득 불평등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정책기획위원회, 2018). 그러나 사회포용의 대상은 경제적 빈곤에 의해서 배제된 사람들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포용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종교, 이주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성적 지향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배제 혹은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원과 서비스, 사회적 관계, 정치참여 등의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과정인 동시에 제도이다(세계은행, 2013).

또한 사회포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인 동시에 개인 혹은 지역 차원에서 형성된 인식과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포용은 관용과 유사한 혹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타인을 나와 동등한 가치의 개인으로서 대우하려는 의식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김운태, 2019; 유란희외, 2020).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 때문에 정치적 및 사회적 참여, 자원과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이웃, 친구, 배우자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와 인식을 지칭하는 것이다(권연화외, 2021). 이러한 포용적 태도가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사실은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Deloitte 2019). 그리고 사회포용은 물적 발전 이외에 사회적 응집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인원외, 2020). 그러므로 인구와 경제성장이 정체되는 동시에 다문화사회로 진입이 가시화되어 사회적 이질성이 높아지는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발전의 새로운 수단으로써 사회

포용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수준보다는 지역 수준에서 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포용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고, 지역적 차원에서 포용을 다룬 연구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는 다문화와 장애인 등 특정 집단(안성조외, 2019)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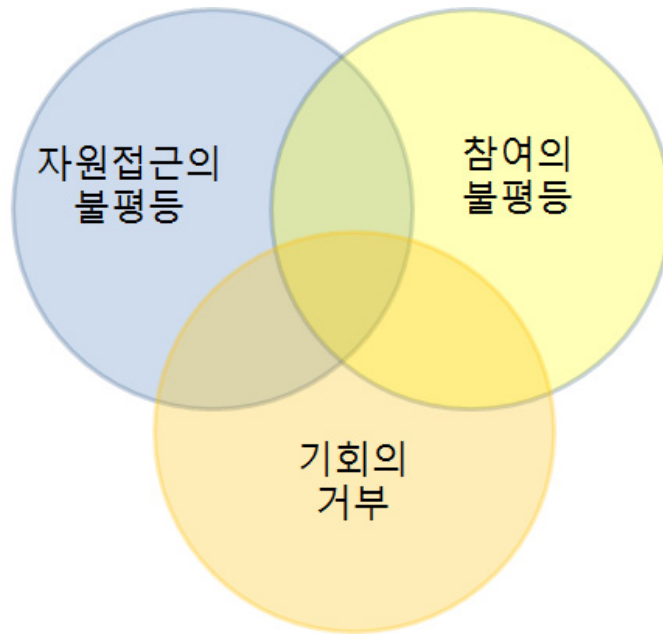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첫째, 충남지역 15개 시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 실태를 분석한다. 여기서 사회포용의 대상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며, 사회포용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 혹은 특정 시군에서 사회적 배제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인식으로 정의하여 측정한다. 둘째,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긍정적 관계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한다. 물질적 측면에서는 인구증가와 경제 성장을, 질적 측면에서는 지역발전의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는 사회통합을 포함한다. 셋째,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 정책 수립과 운영원리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차원의 사회포용 실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하는 동시에 사회포용의 관점에서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배제와 사회포용

일반적으로 사회포용은 그 자체보다는 사회배제와 연관되거나 혹은 반대되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상태가 사회포용”이며, 사회배제에 대한 본질과 이해가 선행된 후 사회포용의 개념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Cameron, 2006). 사회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용어는 1974년 프랑스 전 사회행동담당 국무장관인 르네 레누아(René Lenoir)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다. 당시 그는 정신 및 신체 장애인, 자살자, 고령의 환자, 학대받은 어린이, 마약 중독자, 비행자, 한부모 자녀 등 ‘사회적 부적응자’(social misfits) 혹은 사회적 배제자가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분 1을 차지한다고 지적했고(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6),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에 통합 및 편입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확장한 이후 사회배제에 대한 인식이 유럽에서 확산되었다(신유리외, 2013).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0년을 빈곤과 사회배제 극복의 해로 선포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 일반인들이 빈곤과 사회배제에 대한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박수향, 2010).

사회포용과 반대되는 사회배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한 상태로서 사회적 자원에 대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접근 및 이용 기회의 박탈”(Silver, 1994)로 정의된다. 또한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개인, 가족, 집단, 이웃으로부터 박탈되는 과정”(Pierson, 2002)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나아가 “개인과 그들의 지역사회가 양극화되고, 사회적으로 차별되고 불평등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레비타스외(Levitas et al., 2017)는 사회배제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자원 및 권한, 재화 서비스의 부족과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배제를 개념화한 것이다.



자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6

[그림 1] 사회배제의 개념

이상의 정의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배제가 단순히 소득이나 고용 등의 물질적 박탈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나아가 사회의 중요한 결정에의 참여 혹은 교류를 할 수 없는 소외감과 열등감을 수반하다. 만약 사람들이 소득, 고용, 토지 및 주택과 같은 물질적 자원이나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할 때 참여는 방해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는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행사하거나 서로 교류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이 동등한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제한된다. 따라서 사회배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삶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이어지고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6).

사회과학에서 특정한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즉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종교, 이주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등은 사회배제의 근거가 되었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6).

즉 특정한 개인과 집단을 구분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불평등한 구조와 인식이 배제를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사회배제의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특정 속성이나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불평등한 구조와 사회적 인식은 배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성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기회, 접근성, 혜택 등을 제약하는 배제를 강요하고, 그 결과로 사회적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조권중, 2017).

사실 빈곤과 사회배제의 개념은 서로 얽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다. 레비타스외는 “사회배제를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들은 다차원적이고 관계적이며 역동적인 성격에 기초하여 빈곤과 구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Levitas et al., 2007). 사회적으로 배제된 모든 집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모두 처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장애나 성적인 성향 때문에 배제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가난하게 살지는 않는다. 빈곤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반면, 사회배제는 인간의 발전에 대해 보다 총체적인 관점을 취한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6).

사회포용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사회배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극복된 상태를 뜻한다(O'Reilly,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포용이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지, 종교 또는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 참여 조건을 향상하는 과정”(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6) 혹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삶에 완전히 참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상으로 여겨지는 삶의 수준을 누리는 데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얻는 과정”으로 정의된다(유럽공동체 위원회, 2003). 즉 단순히 고용, 빈곤 및 불평등의 범위를 넘어서 시민들의 참여의 불평등과 기회의 거부, 불평등한 자원 접근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 포용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 배제자들이 온전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적 차원에서 그들의 능력, 기회, 품위를 높여주는 과정이자, 정책적 혹은 제도적 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다(세계은행, 2013).

이러한 사회포용은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을 가지지 않으며, 다면적인 속성을 가진 개념이다(조순옥외, 2019). 우선 호주 사회포용위원회(2008)에서는 포용을 학습(교육

및 훈련의 참여), 일(고용, 무급 및 자원봉사), 참여(사람들과 연결, 지역서비스의 이용, 지역, 문화, 시민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참여), 발언권(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OECD(2019)는 성인 학습의 우선순위로 포용을 강조한다. OECD에 의하면, 포용은 “모든 사람,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롭게 해야 할 성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포용을 관계성, 소속감, 의사소통의 원활함, 동등한 기회의 보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Rimmerman, 2013).

따라서 사회포용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으로 배제된 사람들 혹은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향상, 심리적 및 감정적 만족감과 삶의 질 개선, 기본권, 평등, 형평, 차이 존중 등과 같은 가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조순옥외, 2019). 결과적으로 사회포용은 이러한 다면적 요소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내면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회포용의 과정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을 없애는 동시에 그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특정한 정책과 제도의 고안을 포함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배제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bringing people in)까지 포함된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6). 결과적으로 사회포용은 하나의 과정이자, 그 자체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약자와 포용적 태도

사회포용이 특정한 지역 혹은 공동체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자 혹은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과 태도를 전제해야 한다. 즉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인정이 수용되지 않아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범주에 포괄되지 못한 사람들을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포용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박탈이나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그들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Fraser, 2003; 우선희, 2020 재인용). 이 경우 사회포용은 타인을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개인으로서 대우하려는 의식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유란희외, 2020).

과거에는 사회포용의 대상, 즉 사회적 배제자를 주로 빈곤아동을 포함한 경제적 취약 계층이나 노인 및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및 다원화가 가속화되면서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은 다양화되었고, 그에 따라 포용의 대상 역시 다차원적인 측면을 가진다. 즉 다양한 가치체계들이 등장하면서 포용의 대상이나 범위의 문제가 확대된 것이다. 지역공동체나 시민사회, 국가 등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공동체주의나 국가주의 및 세계시민주의로까지 포용의 범위는 확대 될 수 있다(유란희외, 2020).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사회포용의 대상은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인의 경우는 전통적인 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여성, 노인, 이혼 등의 가족해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소득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회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유란희외, 2020) 사회포용의 대상이 된다. 또한 해외의 경우는 성소수자, 즉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를 사회적 배제자로 규정하여 이들을 사회포용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Brenner, Lyons, & Fassinger, 2010; Reynolds 2013; Akker et al. 2013). 우리의 경우 외부인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을 포함한다(우선희, 2020).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이나 서구에 비해 인종,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약한 사회이지만, 다문화사회로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내부인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포용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인 및 외부인에 대한 사회포용은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원용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과정이다. 즉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평가 및 정서적 애착이 ‘우리’라는 내집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들’로 불리며 외집단으로 분류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로 확대되는 과정인 것이다(유란희외, 2020). 이는 사회포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지, 종교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에 근거하여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여 배제하려는 태도를 극복하고, 동일한 충성과 자긍심을 및 애착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포용을 공동체 의식, 이타심, 관용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도와도 맞닿아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공동체 의식은 개인이 속해 있는 특정한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느끼는 귀속감에 기초한 공익정신, 그리고 공동체 규범과 관련된 질서의식 또는 준법의식 등 공동체 이익에 헌신하려는 의식과 태도를 의미한다(이승중, 1997). 이러한 인식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할애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Mannarini et al, 2014; 이인원외, 2020).

이타심 역시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와 관련성이 있다. 이타심은 “타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Boston, 1991) 태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껴 도와려는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으로 발현된다(Piliavin et al, 1981). 남을 도와려는 이타심의 기저에는 정서적 측면의 슬픔과 동정심이 함께 수반된다. 우리나라를 사례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이타심이 높은 성향의 개인일수록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해외 사례의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태도에는 이타심이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이인원외, 2020).

한편, 우리사회에서 사회포용은 관용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관용은 시민적 자유주의를 사회 내 소수의 집단에게도 적용하여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수용하는 태도이다. 자신의 다른 가치와 다른 이념, 의견, 가치관, 세계관에 동의하거나 승인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용인하거나 수용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말한다. 특히 관용은 평상시 알고 지내던 사람보다는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가치와 생각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도묘연, 2017). 인식과 태도의 측면에서 사회포용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연구들 역시 사회적 약자 혹은 배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수용 정도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권연화외, 2020, 이인원외, 2020).

그러나 조직문화와 비즈니스 성과를 연구한 델로이트(Deloitte, 2013; 2019) 재단은 사회포용과 배제 및 관용을 포괄하는 포용의 개념화를 시도하면서, 관용과 사회포용이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직장 혹은 기업 내 조직문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포용의 개념이지만, 민족, 나이, 종교, 장애, 성별 등의 특성에 의해서 차별받거나 혹은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포용을 다루고 있어 특정한 공동체 혹은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포용의 개념화에 일정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포용이 관용과 다른 차원의 개념인 동시에 다양한 발전단계를 거칠 수 있다는 논의는 눈여겨 볼만하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용은 포용이 아니라 비포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적 태도나 차별적 관행에 시달리는 경우 개인은 배제 및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배제’의 단계를 벗어나면 사람들에게는 ‘관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관용’은 차이와 배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처로운 허용을 수반하지만,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관용과 포용을 동일한 차원의 개념으로 환원할 수 없다.

포용의 첫 번째 단계는 관용 보다 높은 단계인 ‘공정과 존중’에서 출발한다. 이 단계에서는 배제된 사람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공정과 존중의 기대를 포함하며, 직장 내에서 기회나 평등한 대우로 나타난다. 이 경우 과거 배제된 사람들은 자신이 공정하고 공손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기회, 급여, 평가 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가치와 소속’의 단계에서는 공정과 존중과 달리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한 개인이 공동체 혹은 사회에 의해 이해되고 인정받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 단계에서는 배제와 차별을 받았던 개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독특한 가치가 이해되고 인정되며, 사회나 공동체의 속해 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회참여는 결국 과거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발언권 확대와도 연결된다.



자료: Deloitte(2013; 2019)

[그림 2] 포용의 발전단계

그리고 포용의 가장 높은 단계인 ‘영감 및 확산’에서는 조직 혹은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차이가 존중 및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차이에 의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영감을 받고 조직 내 기여도가 높아지는 단계이다. 구성원들 모두가 신뢰와 권한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며, 두려움이나 당황함 없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포용은 혁신, 고객서비스, 협업 및 참여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포용의 최종 단계에서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과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아 잠재력을 발휘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 및 확산되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의사결정에서 과거 차별받는 사람들과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조직 혹은 공동체 성과 달성에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포용은 딜로이트 재단이 정의한 ‘관용’ 혹은 ‘공정과 존중’의 어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헌신을 통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동체 의식과 자기중심적 상태에서 벗어나 남을 도와주려는 이타심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자를 차별하지 않고 도와주는 동시에 존중하려는 인식과 태도를 사회포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사회포용과 지역발전

지역발전이란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갖는 지역의 물질적 기반의 확충과 함께 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을 도모하기 위해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및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이러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수단으로 사회포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포용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견인하지 않는다. 사회적 다양화 및 다원화 추세 속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Habermas, 2001; 1998; Thomaseen, 2006; 장용석외, 2020). 또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신뢰나 행복 등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Bernard, 1999; Jenson, 1998). 이러한 포용은 국가적 차원 보다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포용의 상태와 수준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경제적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다원화 및 이질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포용적 태도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실증적인 연구들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 배경으로는 사회포용 혹은 사회배제의 측정 지표가 인식과 태도 보다 빈곤과 불평등을 의미하는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 접근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우선희, 2020)이 강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의 연구들은 조직 및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포용적 태도와 경제성장의 관련성을 규명하거나 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권리의 확충 정도와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포용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이유에 대한 논의도 덧붙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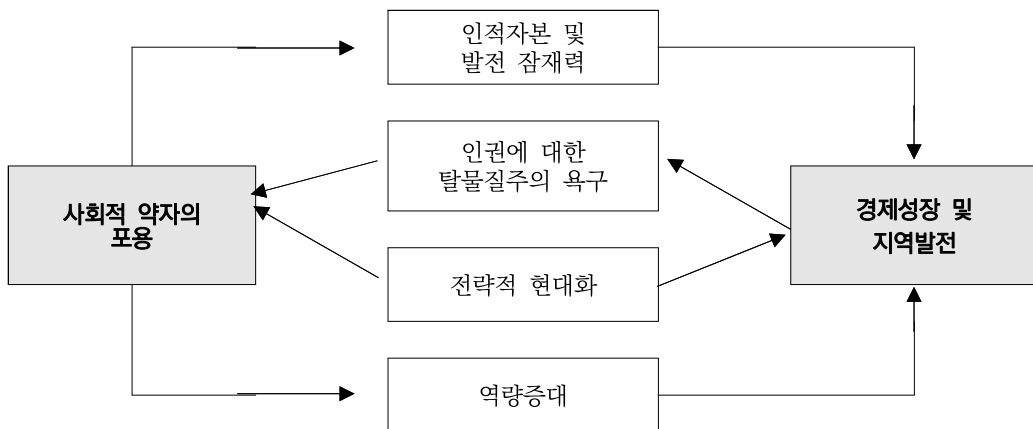
1) 경제성장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포용은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loitte, 2019). 첫째, 포용은 산업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즉 포용이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 부문을 공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포용은 고용성과를 개선시킨다. 즉 포용이 커지면 사람들이 차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의 기회를 갖거나 더 긴 근무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포용은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을 개선시킨다. 포용은 고립에 저항하게 되고, 공동체 참여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건강문제, 특히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포용은 사회서비스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포용이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고, 소득과 주거지원금의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사회서비스의 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포용은 포용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경제적 불이익 영역에서 임금과 노동력 참여를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의 편익이 모든 지역사회에서 더 균등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카터(Carter, 2015) 역시 사회포용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포용과 장기적인 성장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이론적·실증적 분석이 있지만, 포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배제된 집단이 교육, 고용 및 경제활동의 기회에 더 많이 접근하게 될 때, 포용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포용은 고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여성을 포용하려는 남녀 간의 성평등 의식은 거시적 수준의 성장, 인적 자본 및 노동 농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었다.

최근 사회포용이 경제성장(혹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증명한 연구들은 주로 성소수자(LGBT)에 대한 포용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젯(Badgett et al., 2019)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들은 성소수자(LGBT)에 대한 포용이 1인당 2,000달러의 GDP를 증가시키는 것을 계량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리고 K. Ratnawati (2020)는 재무적 포용성이 경제성장, 빈곤, 소득불평등, 그리고 금융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포용과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의 관계를 다음의 4가지 관점, 즉 인적자본적 접근, 탈물질주의 가치, 전략적 현대화, 역량적 접근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자료: Badgett et al.(2019)

[그림 3] 사회적 약자의 포용과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의 관계

(1) 인적자본적 접근

포용과 지역발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논거 중의 하나로 인적자본 이론을 꼽을 수 있다. 인적자본은 개인의 생산성과 전반적인 경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역량, 지식 및 건강 특성 등을 포함한다(Mincer, 1958; Becker et al., 1990). 이러한 관점에서, LGBT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면 LGBT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 더 나은 건강 상태 또는 추가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인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인적자본을 확대하게 된다. 반면 교육 환경 및 건강 차원에서 LGBT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인적 자본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포용은 기존 인적 자본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생산성과 경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베르커(Berker, 1971)의 차별이론에 의하면, 차별하는 고용주들은 비용이 덜 들거나 혹은 적어도 보통 노동자 만큼 생산적인 소수 노동자의 고용을 거부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포기하게 된다. 만약 비차별적인 고용주가 충분하지 않다면, 소수 민족 노동자들은 그들이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 생산적이고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차별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일자리로 몰릴 수 있다(Bergmann, 1971). 따라서 포용이 낮을 경우, 인적자본의 감소 또는 기존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경제는 잠재력만큼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유사한 관점은 성과 발전 관련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연구는 성 불평등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Berik, Rodgers, & Seguino, 2009).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성 교육의 불평등이 낮은 경제성장과 관련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Knowles, Lorgelly, & Owen, 2002; Klasen, 2002; Klasen & Lamanna, 2009). 이는 LGBT 사람들이 교육에서 배제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예를 들어, 차별과 낙담으로 인해 LGBT 사람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교육을 받게 될 경우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편 가족에서 젊은 LGBT 사람에 대한 가족결정과 관련하여 성적 비율을 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는 역량의 개발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인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인으로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Cunha & Heckman, 2009). 그러나 모든 가정이 각각의 아이들에게 항상 동등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성과 소년이 여성과 소녀

보다 더 크고 더 영양가 있는 식사량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여성과 소녀들이 건강을 필요로 하는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는 능력이 제한된다(Pitt, Rosenzweig & Hassan, 1990). 그런데 LGBT 혹은 성 비순응 아동들은 음식, 주택 또는 학교에 대한 접근 제약과 가족 내에서 유사한 불평등한 대우에 직면할 수 있다.

다양한 LGBT를 위한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포용과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례에 의하면, 직장에서 LGBT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사용자들이 LGBT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배제와 관련된 비용(예: 의료비 혹은 결근 비용 등)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과학 및 보건분야의 연구는 건강 개선과 직원 이직의 낮은 가능성 등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Badgett, Durso, Kastanis, & Mallory, 2013; Li & Nagar, 2013). 포용과 사용자의 성과를 연결하는 경로 중 하나는 직장 내 차별을 줄여 LGBT 노동자의 정신 건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Button, 2001). 또한 지원적 직장 환경은 LGBT 노동자들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공개를 증가시켜 LGBT 노동자들의 정신건강도 향상시킨다(Ragins, Singh, & Cornwell, 2007). 지원적 업무 환경은 또한 LGBT 노동자들의 더 큰 업무 참여, 기여 및 헌신과 관련이 있다. 직장 내 다양성에 대한 LGBT 지원 정책과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LGBT 노동자와 동료 및 감독자 사이의 관계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Brenner, Lyons, & Fassinger, 2010). 이러한 경향은 LGBT와 관련되지 않은 유사 연구에서도 LGBT에 대한 포용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이 발생해 잠재력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adgett et al, 2013). 따라서 포용이 더 커질수록 사용자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이 더 촉진될 수 있다.

(2) 탈물질주의적 관점

탈물질주의자들은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더 안전해진 후에 LGBT 권리를 더 중요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 경제가 튼튼해지면 한 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관심이 개인의 생존에 대한 관심에서 자기 표현,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LGBT 권리의 가치로 옮겨갈 수 있다(Inglehart, 2008). 이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는 1인당 소득이 더 높은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더 수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tulhofer & Rimac, 2009). 그러므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통해 LGBT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

레이놀즈(Reynolds, 2013)와 아커르외(Akker et al., 2013)는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LGBT 사람들을 위한 법적 권리 확립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는 더 큰 경제 발전이 LGBT 사람들의 권리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포용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GDP에 대한 역할이 다른 경제적·정치적 변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안데르센과 페트너(Andersen과 Fetner, 2008)에 의하면, 한 국가에서 더 많은 불평등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쿤츠외(Kuntz et al., 2015)에 의하면, 개인의 동성애에 대한 관용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보편주의적 가치를 채택하고, 더 진보적인 규제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사는 것이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탈물질주의 욕구가 생겨나고, 이를 통해 LGBT에 대한 포용이 증가하게 된다.

(3) 전략적 현대화

전략적 현대화는 포용과 경제개발을 강화하는 전략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통해 LGBT의 포용과 경제발전을 접목시킨다. 각국은 국가의 현대화와 개방성을 입증하기 위해 LGBT 시민을 더 포괄하는 개발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Weiss, 2007). 이 전략의 목표는 현대적인 이미지와 관광객,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 또는 다른 무역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전략적 현대화 모델에서 개발과 포용은 동시에 강화되지만 인적자본 및 탈물질주의 가치 관점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놀랜드(Noland, 2005)가 있다. 그에 의하면, 동성애 포용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플로리다(Florida)의 창조적 계급 가설에 의하면, LGBT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그들의 가시성 모두 숙련되고 창조적인 노동자들에게 개방적인 창조적 비즈니스 환경을 의미하고, 이동과 혁신을 촉진하게 된다(Florida & Gates, 2001). LGBT 사람들의 확인이 직접적으로 더 높은 경제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적이고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Florida & Tinagli, 2004). 그 증거로 그는 1인당 GDP와 게이 및 레즈비언의 대중적 포용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했지만,

이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용은 LGBT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고, 관용은 창조적인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후를 신호함으로써 경제발전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전략적 현대화는 LGBT에 대한 포용과 경제발전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을 포용하려는 남녀 간의 성평등 의식은 거시적 수준의 경제성장 및 노동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Carter, 2015).

(4) 역량적 접근

역량적 접근은 1인당 GDP와 같은 전통적인 웰빙 측정의 많은 한계를 넘어서도록 설계된 웰빙을 평가하기 위한 논리이다. 역량적 접근에 의하면, 개발은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 확장으로 개념화된다(Nusbaum, 2001; Sen, 1999). 역량적 접근에서 화폐적 수입의 증가는 어떤 개인이 획득하고 싶은 상품 혹은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량적 접근에 의하면, 사회적·정책적 조건은 그들이 원하는 건강과 교육 등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역량적 접근에서 개발은 역량의 확장과 일치하게 된다.

역량적 접근에서 LGBT 사람들과 같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면 성장 및 개발의 개념이 제한된다. 즉 고용과 교육의 차별, 폭력과 괴롭힘, 낙인과 거부, 그리고 범죄와 법률의 비인식은 LGBT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Waldijk, 2013). 따라서 포용은 인간복지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적 접근은 LGBT의 포용과 자유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LGBT의 살아있는 경험의 반영하며, LGBT의 경험이 국가 및 경제발전에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적 자본적 접근과 상이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LGBT에 대한 포용으로 인해 역량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 및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통합

사회포용은 사회통합을 통해 질적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유엔경제사회위원회(2016)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권리와 책임을 가진 모든

개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로 정의한다. 또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을 “사회 내 균열이나 분열의 부재와 그러한 분열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응집력 있는 사회는 소속감을 만들고, 신뢰를 촉진하며, 배제와 소외와 싸우고, 구성원들에게 상향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엔경제사회위원회는 사회 통합과 사회적 응집력이라는 두 용어가 때때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경우 사회포용과 사회통합은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국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원용하는 OECD의 개념화에서 사회통합은 “모든 구성원의 웰빙을 위해 노력하고, 배제와 소외를 극복하여 소속감을 만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 구성원들에게 상향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개념화된다. 즉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통합을 동일한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공통의 가치가 사회체계 내에서 구조화되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다(Landecker, 1951). 이러한 사회통합은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과 동일한 개념, 즉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내에서의 사람에 적응하고 공동체 내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된다(오영훈외, 2010). 우리의 경우 장애인 등의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와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등 새롭게 편입된 사람들을 타자로 규정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과 사고가 확산되면서 사회통합을 우려하는 규범적 논의가 확산되었다.



자료: OECD(2011)

[그림 4] OECD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두 국제기구의 정의를 종합하면, 사회포용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과 함께 사회통합 혹은 사회의 한 축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 조직의 특성으로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로 이루어진 공공재이며, 협력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Putnam, 2001). 즉 개인이 집단과 조직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능력으로 집단 구성원 간에 형성된 비공식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적 이동은 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상향 이동이 가능한 상황 혹은 가능성을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OECD, 2011).

특히 중 사회포용은 두 가지 다른 요소보다 사회통합의 달성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빈곤과 불평등 사회배제가 심각한 사회에서 개인 간의 신뢰 및 규범 및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사회적 자본이 성취될 수 없으며, 동시에 사회 내에서 지위이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우선희, 2020). 물론 신뢰와 참여의 증대, 규범과 가치의 공유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일수록 사회포용 의식이 증대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인원의, 2020; 권연화의, 2021). 그러나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인 사회포용이 사회통합을 추동한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포용은 사회통합 혹은 사회적 응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적 지표가 된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공통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감과 결속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배제적 집단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중요하다. 이러한 포용적 태도의 확장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통합은 사회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격차와 차별을 줄여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회갈등을 관리 및 조정하는 것을 통해 성취되기도 한다(전영상의, 2014).

특히 다원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배제적 태도와 차별 및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갈등의 심화에 따른 사회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사회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외집단의 근거는 소득과 교육 수준, 거주지역이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쿼어 축제 반대를 둘러싼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성 정체성 역시 배제적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근거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인종, 언어, 종교 등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약해 유럽을 포함한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이민자 및 이슬람교도들을 외집단을 구분하는 사회적 토대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한국 사회로 편입된 이후, 이들을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배제하는 인식과 태도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자 혹은 사회적 약자를 타자로 규정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과 사고가 확산되면서 사회통합을 우려하는 규범적 논의가 확산되었으나,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포용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적 연구들은 국내에서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사회포용과 배제의 측정 지표가 인식과 태도보다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자본, 공동체 의식, 이타심,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포용적 태도에 미친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들이 최근 발표되었다(유란희외, 2020; 이인원외, 2020; 권연화외, 2021). 그러나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인 사회포용이 사회통합을 추동한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 즉 여성, 남성, 장애인, 이주민(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등 인식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우선희(2020)의 연구는 눈여겨 볼만하다. 그녀의 분석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경제적 상황과 서비스 접근성(객관적 빈곤, 노동시장 참여 형태, 건강상태, 주거비 부담, 문화시설·교육시설·안전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등) 및 포용적 태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사회배제가 나쁜 분배정책과 인식의 교차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포용 정책은 재분배 정책과 인식의 개선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사회통합을 이끄는 사회포용 정책이 단순히 물질적 박탈의 개선에 한정되지 않다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4. 선행연구의 검토

2010년대 후반 이후 포용성장, 사회포용,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5개 국정목표 중 하나라 포용을 설정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 혹은 포용성장을 강조한 이후 관련 연구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포용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는 포용을 경제적 및 물질적 기반을 확대하는 복지와 재분배 정책의 도입과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 포용성장이 함의하듯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포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학술적 이론에 기반하기 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주로 포용 성장의 필요성(조흥석, 2018; 은재호외, 2019)을 제시하거나 소득불평등 현황, 산업구조, 인구구조, 고용구조, 주거형태 등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포용을 정의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홍사흠외, 2018). 따라서 포용성장을 강조한 연구들은 사회포용의 대상은 주로 경제적 빈곤 계층으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주로 포용 지수를 개발 및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지속가능한 지표 혹은 삶의 질 지표 등과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EU, 2016; 정해식, 2017; 김성근, 2018; 박건영, 2020; 장용석외, 2020; 우선희, 2020; Dörffel, et al., 2020). 그리고 포용 지수개발 연구의 경우 김성근(2018)을 제외한 모든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관심과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적 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지역적 접근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대부분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시도된 경우가 있지만(안성조외, 2019; 박건영외, 2020), 장애인 등 특정한 대상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특히 개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접근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규범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LGBT처럼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고용 및 경제활동 참여가 고용률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견인하며, 성평등이 거시적 수준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Carter, 2015; Badgett et al., 2019), 국내에서는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포용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규범적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인권, 2015; 박인권 2018; 김현호, 2019; 유란희외, 2020). 또한 사회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동체 의식, 이타심, 사회적 자본, 사회갈등의 영향을 규명했으나, 포용이 경제성장 혹은 사회통합처럼 물질적 및 사회적 기반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우선희(202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선행연구는 사회포용의 대상을 경제 취약 계층으로 한정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규범적 접근을 하거나 지수개발에 초점을 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포용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과 세계화 및 다원화 추세 속에서 새롭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자로 편입된 사람들에 대한 포용도 분석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포용이라는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포용성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협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첫째, 공간적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나타난 포용의 실태와 특성에 초점을 두어 충남의 15개 시군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사회포용에 대한 규범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포용의 실태를 분석하는 동시에 포용과 지역발전의 긍정적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셋째, 포용성장에 경도되어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개선의 관점에서 사회포용의 대상을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한정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사회포용으로 구체화 해 정의한다.

〈표 1〉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정해식의(2017) · 연구목적: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가중치 도출	· 문헌연구 · 계량연구	· 선행연구 검토 · 지수화 방법론 이슈 · 사회통합 지표체계 구축 및 가중치 도출
	2	· 과제명: 사회통합지수의 지역간 차이와 지역별 사회통합 증진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김성근(2018) · 연구목적: 지역사회통합지수의 개발 및 측정	· 문헌연구 · 계량연구	· 선행연구 ·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산출 · 지역사회통합지표의 정책적 해석
	3	· 과제명: 포용적 지역균형발전 구상 · 연구자(년도): 김현호(2019) · 연구목적: 포용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발 및 제시	· 문헌연구 · 실증분석	· 포용적 지역발전의 이론논의 · 지역발전정책의 포용성 진단 및 분석 · 외국의 포용적 지역발전정책과 시사점 ·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상과 추진전략
	4	· 과제명: 대구경북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포용성 확보방안 · 연구자(년도): 안성조외(2019) · 연구목적: 대구경북지역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도출	· 문헌연구 · 인터뷰 조사	·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이론검토 ·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통합저해요인 ·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포용성 확보방안
	5	· 과제명: 강원지역 포용성장 현황과 지역혁신 성장에 대한 연구 · 연구자(년도): 박건영 외(2020) · 연구목적: 포용성장의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측정	· 문헌연구 · 실증분석	· 포용성장의 개념 · 포용성장 측정지표의 검토 · 강원지역 포용성장 지표 개발 · 강원지역 포용성장 현황 · 강원지역 지역혁신성장 모델 제안
	6	· 과제명: 국가와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시키는가? · 연구자(년도): 유란희외(2020) · 연구목적: 국가 및 지역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규명	· 문헌연구 · 계량연구	· 포용성과 사회배제 · 분석변수 및 모델 설정 · 실증분석
	7	· 과제명: 사회적 포용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 연구자(년도): 우선희(2020) · 연구목적: 사회적 포용의 중첩성과 연관성, 그리고 사회적 포용의 상태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규명	· 문헌연구 · 계량연구	· 사회적 포용의 개념 및 측정지표 · 사회적 포용상태의 진단 · 사회적 포용상태가 사회통합에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과 관계	· 문헌연구 · 계량연구	· 충남의 사회포용의 개념 구분 · 충남의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제3장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1) 사회포용의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의 실태와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년 조사되는 충남사회조사를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충남사회조사는 2016년 이후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귀화자, 농어업인, 노숙인, 성소수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사회조사에서는 “귀하께서는 거주지역(시군)에서 다음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로 사회포용을 조사하고 있고, 이 사회포용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충남사회조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은 개별 개인이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사회조사에는 2016년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을 조사해 오고 있지만, 해당 연도별로 조사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공통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항목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의 6개 대상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귀화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런가 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사회포용의 조사항목에 농어업인이 포함되었고, 2021년부터는 새롭게 노숙인과 성소수자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었다.

충남사회조사에서 2016년 이후 공통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는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은 명백히 사회적 약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도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귀화자에

대한 조사는 2018년까지 조사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부터 조사되었기 때문에 2016년 이후 연속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자료적 한계가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에 농어업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2021년 처음 도입된 노숙인과 성소수자는 2016년 이후 연속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자료한계가 있다.

〈표 2〉 충남사회조사의 사회포용 조사항목

구분	2016 (n=27,939)	2017 (n=27,291)	2018 (n=26,318)	2019 (n=25,777)	2020 (n=25,399)	2021 (n=25,128)
여성	○	○	○	○	○	○
아동·청소년	○	○	○	○	○	○
노인	○	○	○	○	○	○
장애인	○	○	○	○	○	○
외국인 노동자	○	○	○	○	○	○
결혼이주민	○	○	○	○	○	○
북한이탈주민	-	-	-	○	○	○
귀화자	○	○	○	○	-	-
농어업인	○	○	○	○	-	-
노숙인	-	-	-	-	-	○
성소수자	-	-	-	-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이후 연속적으로 조사된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포용을 분석자료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귀화자의 성격을 갖고, 귀화자의 다수가 북한 이탈주민임을 고려하여 귀화자를 북한이탈주민과 통합하도록 한다. 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귀화자에 대한 사회포용을 북한이탈주민의 자료로 간주하고, 2019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포용과 연결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2021년 충남사회조사의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포용을 분석자료로 선정하도록 한다.

2) 지역발전의 분석자료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지역발전에 대한 자료구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의미한다(이성근외, 2013). 이러한 지역발전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지만, 흔히 인구, 경제, 사회통합의 3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즉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제가 성장하거나 혹은 사회가 안정적인 경우를 지역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발전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포용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회포용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포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하거나 사회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해당 지역에는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김형국,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인구, 경제, 사회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 측면에서 사회포용은 특정 지역의 인구 혹은 순이동(전입인구-전출인구)을 증가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포용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해 올 것이고, 해당 지역의 인구 유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순이동은 증가하게 된다.

둘째, 경제 측면에서 사회포용은 해당 지역의 고용과 GRDP의 성장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포용은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게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포용이 높은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서 고용과 GRDP의 성장 폭이 더 높을 것이다.

셋째, 사회 측면에서 사회포용은 공동체의식을 개선하게 될 것이고, 범죄 및 사회안전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사회포용은 해당 사회의 소속감을 높이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포용은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것이고, 해당 지역의 범죄안전 및 사회안전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역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자료는 충남통계를 기준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다만 사회통합 측면의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사회안전은 2차 자료를 통해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충남사회조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2차 분석자료, 즉 인구 측면의 인구, 순이동, 경제 측면의 고용, GRDP는 충남사회조사의 연도와 일치해 2016~2021년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3) 분석자료의 통합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지역발전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연도의 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에 비해서 인구가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변화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2016년 자료를 특정 변수의 증감을 측정하기 위한 부수적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충남사회조사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이 조사항목이 상당부분 불일치하기 때문에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2017~2021년으로 재설정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의 측정변수인 사회통합과 관련한 2015년 자료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6~2021년의 충남사회조사를 통합하여 129,913개의 사회포용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리고 2016~2021년까지 충남의 15개 시군별로 지역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4개 변수의 2차 자료를 구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충남의 사회포용은 충남사회조사를 통합한 129,913개 조사자료를 이용해 연도별, 지역별로 분석하도록 한다. 한편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남통계의 2차 자료와 충남사회조사의 1차 자료를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7개 변수, 즉 인구, 순이동, 고용, GRDP,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사회안전과 7개 집단에 대한 지역별 사회포용 값을 통합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 패널자료는 충남의 15개 시군별 자료가 2017~2021년의 5개연도로 구성이 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7~2021년 간 충남의 15개 시군별 사회포용 실태를 분석하고,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포용과 관련된 분석은 2017~2021년까지 통합된 충남사회조사 자료를, 그리고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패널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요인분석, 분산분석 및 패널 회귀분석은 STATA를 이용해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사회조사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 즉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포용의 개념을 세분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포용을 2~3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7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단별로 살펴보게 될 경우, 개념적으로 매우 모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사회포용을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요인분석 이후 구분된 사회포용의 개념 간의 상관분석과 차이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2021년을 기준으로 충남의 15개 시군별 사회포용 실태를 파악하고,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어떻게 사회포용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도록 한다. 특정 시군의 사회포용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5개 연도별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분산분석의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 검증을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간변수와 지역변수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개년의 자료가 15개 시군별로 구성된 패널자료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사회포용을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전 연도 인구와 사업체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도록 한다.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인구, 경제, 사회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포용을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포용은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3가지 개념을 동일 모형에서 모두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모형1에서는 사회포용의 개념을, 그리고 모형2에서는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개념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자 한다.

〈표 3〉 패널회귀분석의 변수 구성

구분		모형1	모형2
종속변수	인구증가	인구수, 순이동	
	경제성장	고용, GRDP	
	사회통합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사회안전	
독립변수	사회포용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
통제변수		전 연도 인구수	
		전 연도 사업체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 측면에서는 인구와 순이동 증가를, 경제 측면에서는 고용과 GRDP 성장을, 그리고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사회안전의 개선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들 종속변수에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미치는 지역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 연도의 인구와 전 연도의 사업체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종속변수 중 인구, 순이동, 고용, GRDP의 증감은 로그를 취하였고, 통제변수인 전연도 인구와 사업체수도 로그를 취하도록 한다. 주요 변수의 전체 평균값과 산정식은 〈표 4〉와 같다.

〈표 4〉 분석변수의 평균값과 산정식

구분			평균값	산정식
종속변수	인구 증가	인구수 증가	99.44	$\frac{y_t}{y_{t-1}}*100$
		순이동 증가	62.38	
	경제 성장	고용 성장	7.03	$\ln(y_t - y_{t-1})$
		GRDP 성장	11.57	
	사회 통합	공동체의식 개선	0.11	$y_t - y_{t-1}$
		범죄안전 개선	0.05	
		사회안전 개선	0.03	
독립변수	사회 포용	사회포용	3.43	x_t
		내부포용	3.63	
		외부포용	3.16	
통제변수		전 연도 인구수	11.54	$\ln(c_{t-1})$
		전 연도 사업체수	9.01	

주: t 는 해당 연도, $t-1$ 은 전 연도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충남의 15개 시군별로 2017~2021년의 패널자료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시간과 횡단면이 통제된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사회포용은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1에서는 사회포용을 그리고 모형2에서는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Y_{it} = \alpha + \beta * SI_{it} + \gamma * \ln P_{i(t-1)} + \delta * \ln F_{i(t-1)} + e \quad (\text{모형 1})$$

$$\ln Y_{it} = \alpha + \beta * ISI_{it} + \gamma * OSI_{it} + \delta * \ln P_{i(t-1)} + \epsilon * \ln F_{i(t-1)} + e \quad (\text{모형 2})$$

여기서, Y_{it} 는 i 지역 t 연도 종속변수의 로그값

독립변수: SI_{it} 는 사회포용, ISI_{it} 는 내부포용, OSI_{it} 는 외부포용

통제변수: $\ln P_{i(t-1)}$ 는 전 연도 인구수의 로그값,

$\ln F_{i(t-1)}$ 는 전 연도 사업체수의 로그값

α 는 상수, e 는 오차항

4. 분석자료의 일반특성

충남의 사회포용은 충남사회조사(2017~2021)를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2021년 충남 사회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사회포용이 가장 높은 대상은 노인(3.65)이고,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3.54), 여성(3.52), 장애인(3.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결혼이주민(3.06)과 외국인 노동자(3.03), 북한이탈주민(2.94)에 대한 사회포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충남 사회포용에 대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 지역 사회의 포용은 2017년과 2018년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최근 5년 중에서는 2021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의 포용이 가장 많이 낮아진 대상이 바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 포용은 최근 5년간 각각 0.38, 0.29, 0.26 만큼 감소하였다. 반면 포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포용은 각각 0.12, 0.12, 0.13, 0.15 만큼 감소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 지역사회의 포용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용이 다른 사회적 약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용이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충남 사회포용의 일반특성(2017~202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F값(prob)
여성	3.65 ^b	3.67 ^a	3.61 ^c	3.59 ^d	3.52 ^e	-0.13	131.78 (0.0001)
아동·청소년	3.66 ^b	3.69 ^a	3.66 ^b	3.62 ^c	3.54 ^d	-0.12	120.12 (0.0001)
노인	3.77 ^b	3.81 ^a	3.76 ^b	3.73 ^c	3.65 ^d	-0.12	137.72 (0.0001)
장애인	3.54 ^a	3.51 ^b	3.48 ^c	3.47 ^c	3.39 ^d	-0.15	94.17 (0.0001)
외국인 노동자	3.26 ^a	3.21 ^b	3.07 ^c	3.04 ^d	3.03 ^d	-0.23	348.21 (0.0001)
결혼이주민	3.32 ^a	3.27 ^b	3.16 ^c	3.09 ^d	3.06 ^e	-0.26	406.62 (0.0001)
북한이탈주민	3.32 ^a	3.27 ^b	3.13 ^c	3.03 ^d	2.94 ^e	-0.38	843.27 (0.0001)

주: 사회포용은 5단계 리커트 척도 측정됨.

제4장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1. 사회포용의 개념화

1) 개념화의 방법

충남사회조사는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포용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7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 사회포용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구분이 가능한지를 요인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은 유사한 변수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는 다변량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7개 집단 중에서 사회포용이 유사한 집단을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사회포용을 7개 집단별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세부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7년~2021년의 충남사회조사 129,913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사용해 충남의 사회포용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최대우도법(ML)에 의해 추출하였고, 그 결과 모두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우선 요인을 개수를 결정하는 고유값을 보면, 요인1이 20.6569이고, 요인2가 2.92636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요인1의 기여율을 살펴보면, 0.9154이고, 제2요인의 기여율은 0.1297이다. 그리고 누적기여율은 1.0451이다.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충남의 사회포용은 크게 2개로 개념화 할 수 있지만, 제1요인이 사회포용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추출된 요인을 살펴보면, 제1요인으로는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가 추출되었고, 제2요인으로는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이 추출되었다. 제1요인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즉 외부포용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요인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즉 내부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사회포용을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7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을 사회포용으로 개념화한다면, 이 사회포용은 이주자에 대한 외부포용과 기존 거주자에 대한 내부포용으로 다시 구분된다. 그리고 사회포용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부포용이다. 따라서 사회포용을 보다 간결하게 측정한다면, 내부포용 보다는 외부포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포용,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외부포용과 내부포용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충남 사회포용의 개념 구분

구분			요인1	요인2
사 회 포 용	외부포용	결혼이주민	0.90	0.35
		북한이탈주민	0.86	0.33
		외국인 노동자	0.83	0.37
	내부포용	아동·청소년	0.31	0.83
		여성	0.32	0.83
		노인	0.31	0.77
		장애인	0.51	0.65
	고유값		20.6569	2.92636
기여율		0.9154	0.1297	
누적기여율		0.9154	1.0451	

2) 사회포용 간의 상관성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은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의 3개 개념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포용과 내부포용 및 외부포용의 상관계수는 각각 0.93263 (prob=0.0001), 0.90318(prob=0.0001)로 매우 높은 (+)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상관성은 0.68744(prob=0.0001)로 보통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이 증가하게 될 경우, 사회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은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자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내부포용이 높아진다고 해도 내부포용은 사회포용과 상관성이 더 높고 외부포용과는 상관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즉 내부포용이 높아진다고 해서 외부포용이 높아질 상관성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7> 충남 사회포용의 개념 간 상관성

구분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
사회포용	1		
내부포용	0.93263 (0.0001)	1	
외부포용	0.90318 (0.0001)	0.68744 (0.0001)	1

3) 사회포용의 차이분석

그렇다면, 충남 사회포용의 개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회포용 - 내부포용”, “사회포용 - 외부포용”, “내부포용 - 외부포용”의 쌍대비교를 통해 간 비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포용 개념 간의 차이분석(paired t-test)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포용 - 내부포용”, “사회포용 - 외부포용”, 그리고 “내부포용 - 외부포용”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연도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념 간의 차이분석은 충남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8> 충남 사회포용의 차이분석(paired t-test)

구분		차이 평균	표준오차	t값	prob
전체	사회포용 - 내부포용	-0.20	0.0008	-257.65	0.0001
	사회포용 - 외부포용	0.27	0.0010	257.70	0.0001
	내부포용 - 외부포용	0.47	0.0018	257.70	0.0001
2021	사회포용 - 내부포용	-0.22	0.0018	-118.49	0.0001
	사회포용 - 외부포용	0.29	0.0025	118.54	0.0001
	내부포용 - 외부포용	0.51	0.0043	118.53	0.0001
2020	사회포용 - 내부포용	-0.24	0.0019	-125.51	0.0001
	사회포용 - 외부포용	0.31	0.0025	125.54	0.0001
	내부포용 - 외부포용	0.55	0.0044	125.54	0.0001
2019	사회포용 - 내부포용	-0.22	0.0018	-120.75	0.0001
	사회포용 - 외부포용	0.29	0.0024	120.81	0.0001
	내부포용 - 외부포용	0.50	0.0042	120.80	0.0001
2018	사회포용 - 내부포용	-0.18	0.0016	-114.04	0.0001
	사회포용 - 외부포용	0.24	0.0021	114.04	0.0001
	내부포용 - 외부포용	0.42	0.0037	114.04	0.0001
2017	사회포용 - 내부포용	-0.15	0.0015	-99.59	0.0001
	사회포용 - 외부포용	0.20	0.0020	99.56	0.0001
	내부포용 - 외부포용	0.36	0.0036	99.59	0.0001

우선 “사회포용 - 내부포용” 간의 차이는 -0.20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포용 보다 내부포용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포용 - 외부포용” 간의 차이는 0.27이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포용이 외부포용 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내부포용 - 외부포용” 간의 차이는 0.47이고,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내부포용이 외부포용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의 경우 내부포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포용, 그리고 외부포용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모두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의 사회포용은 내부포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포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외부포용이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제1요인, 즉 외부포용이 91.54%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사회포용을 외부포용만을 이용해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흔히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의 사회포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포용에서 요인의 비중이 높고, 포용이 가장 낮은 외부포용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차이

1)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2021년을 기준으로 충남의 사회포용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포용은 3.31이고, 내부포용은 3.52, 그리고 외부포용은 3.01이다. 즉 충남의 사회포용은 내부포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포용, 그리고 외부포용이 가장 낮다는 차이분석을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7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부포용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는 노인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이 3.54, 여성이 3.52이고, 장애인인 3.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외부포용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는 결혼이주민이 3.0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3.03이며, 북한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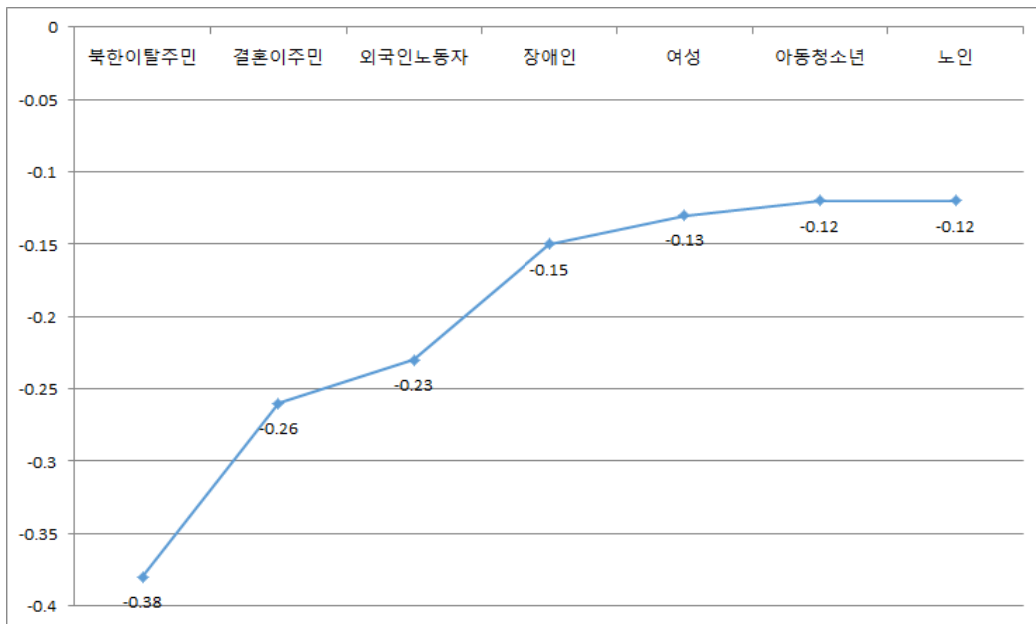
주민이 2.9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충남의 사회 포용은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의 내부포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부포용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9〉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F값(prob)
사회포용	3.51 ^a	3.49 ^b	3.41 ^c	3.37 ^d	3.31 ^e	-0.20	330.82 (0.0001)
내부포용	3.66 ^a	3.67 ^a	3.63 ^b	3.60 ^c	3.52 ^d	-0.14	144.58 (0.0001)
여성	3.65 ^b	3.67 ^a	3.61 ^c	3.59 ^d	3.52 ^e	-0.13	131.78 (0.0001)
아동·청소년	3.66 ^b	3.69 ^a	3.66 ^b	3.62 ^c	3.54 ^d	-0.12	120.12 (0.0001)
노인	3.77 ^b	3.81 ^a	3.76 ^b	3.73 ^c	3.65 ^d	-0.12	137.72 (0.0001)
장애인	3.54 ^a	3.51 ^b	3.48 ^c	3.47 ^c	3.39 ^d	-0.15	94.17 (0.0001)
외부포용	3.30 ^a	3.25 ^b	3.12 ^c	3.05 ^d	3.01 ^e	-0.29	551.94 (0.0001)
외국인 노동자	3.26 ^a	3.21 ^b	3.07 ^c	3.04 ^d	3.03 ^d	-0.23	348.21 (0.0001)
결혼이주민	3.32 ^a	3.27 ^b	3.16 ^c	3.09 ^d	3.06 ^e	-0.26	406.62 (0.0001)
북한이탈주민	3.32 ^a	3.27 ^b	3.13 ^c	3.03 ^d	2.94 ^e	-0.38	843.27 (0.0001)

한편 최근 5년간 충남 사회포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사회 포용은 -0.20 낮아졌고, 내부포용도 -0.14 감소하였다. 특히 외부포용은 최근 5년간 0.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7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포용이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2021년의 사회포용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사회포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북한이탈 주민(-0.38)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7개 사회적 약자 중에서 사회포용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즉 충남에서 사회포용이 가장 낮은 집단에 대한 포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는 악순환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사회포용이 크게 감소한 집단은 결혼이주민 (-0.26), 외국인 노동자(-0.23)이다. 한편 내부포용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는 장애인(-0.15), 여성(-0.13), 노인(-0.12), 아동·청소년(-0.12) 순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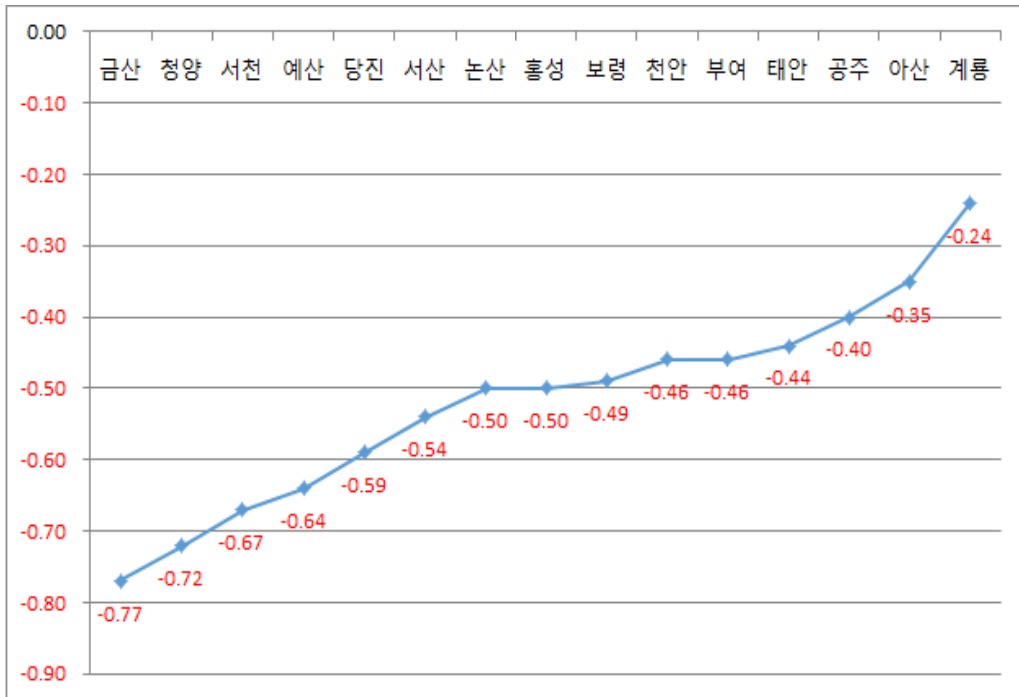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의 사회포용은 내부포용이 외부포용에 비해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의 사회포용은 2021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즉 최근 5년간 충남의 사회포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회포용이 낮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포용이 더 크게 감소하다고 있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최근 5년간 사회포용의 변화(2017~2021)

2) 사회포용의 지역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의 사회포용은 내부포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외부포용이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2021년을 기준으로 15개 시군별로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외부포용에서 내부포용을 뺀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주: 차이 = 외부포용 - 내부포용

[그림 6] 사회포용의 지역차이

2021년 기준으로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금산군이다. 금산군의 외부포용은 내부포용에 비해 0.77 더 낮다. 그 다음으로 청양군(0.72), 서천군(0.67), 예산군(0.64), 당진시(0.59), 서산시(0.50), 논산시(0.50) 순이다. 그리고 보령시는 0.49, 천안시는 0.46, 태안군은 0.4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계룡시는 0.24로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차이가 가장 작고, 그 다음으로 아산이 0.35로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개별 시군은 사회포용과 내부 및 외부포용의 절대적 수준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포용의 수준은 높지만, 외부포용이 낮은 경우 사회포용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내부포용 보다는 외부포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역별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1) 지역별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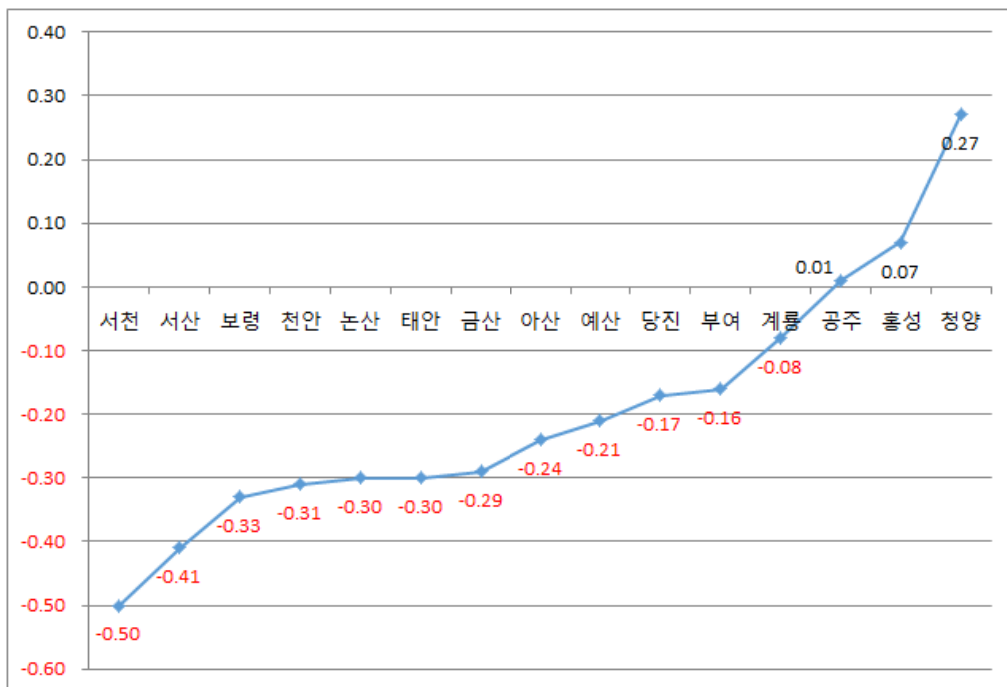
충남의 지역별 사회포용 실태를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예산군이 3.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홍성군이 3.60, 청양군 3.50, 부여군, 3.49, 계룡시 3.41로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계룡시 3.41, 공주시 3.38, 금산군 3.33 순이다. 반면 서산시(3.05), 당진시와 천안시(각각 3.12), 아산시(3.25), 보령시와 태안군(각각 3.25) 등은 사회포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7년 이후 사회포용이 향상된 지역은 청양군(0.27), 홍성군(.07)과 공주시(0.01)의 3곳 뿐이다. 반면 12개 시군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사회포용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포용이 가장 크게 낮아진 곳은 서천군(-0.50)이고, 그 다음으로 서산시(-0.41), 보령시(-0.33), 천안시(-0.31), 논산시와 태안군(각각-.30) 등이다. 그리고 금산군(-0.29), 아산시(-0.21), 당진시(-0.17), 부여군(-0.16), 계룡시(-0.08) 등도 사회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지역별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F값(prob)
전체	3.51 ^a	3.49 ^b	3.41 ^c	3.37 ^d	3.31 ^e	-0.20	330.82 (0.0001)
천안시	3.43 ^a	3.27 ^c	3.32 ^b	3.24 ^c	3.12 ^d	-0.31	83.79 (0.0001)
공주시	3.37 ^a	3.40 ^a	3.34 ^a	3.29 ^b	3.38 ^a	0.01	4.99 (0.0005)
보령시	3.58 ^a	3.35 ^b	3.35 ^b	3.34 ^b	3.25 ^c	-0.33	52.14 (0.0001)
아산시	3.46 ^a	3.43 ^a	3.32 ^b	3.44 ^a	3.22 ^c	-0.24	52.80 (0.0001)
서산시	3.46 ^a	3.30 ^b	3.27 ^b	3.18 ^c	3.05 ^d	-0.41	85.79 (0.0001)
논산시	3.56 ^a	3.66 ^b	3.49 ^c	3.48 ^c	3.26 ^d	-0.30	61.77 (0.0001)
계룡시	3.49 ^b	3.55 ^a	3.46 ^{bc}	3.44 ^c	3.41 ^c	-0.08	8.05 (0.0001)
당진시	3.29 ^b	3.54 ^a	3.30 ^b	3.33 ^b	3.12 ^c	-0.17	78.08 (0.0001)
금산군	3.62 ^a	3.42 ^b	3.64 ^a	3.29 ^c	3.33 ^c	-0.29	67.20 (0.0001)
부여군	3.65 ^a	3.67 ^a	3.32 ^c	3.53 ^b	3.49 ^b	-0.16	43.19 (0.0001)
서천군	3.83 ^a	3.60 ^b	3.60 ^b	3.35 ^c	3.33 ^c	-0.50	105.37 (0.0001)
청양군	3.23 ^d	3.30 ^{bc}	3.32 ^b	3.27 ^{cd}	3.50 ^a	0.27	39.10 (0.0001)
홍성군	3.53 ^c	3.85 ^a	3.6 ^{4b}	3.38 ^d	3.60 ^b	0.07	85.42 (0.0001)
예산군	3.86 ^a	3.64 ^b	3.60 ^b	3.66 ^b	3.65 ^b	-0.21	21.31 (0.0001)
태안군	3.55 ^b	3.61 ^a	3.34 ^c	3.36 ^c	3.25 ^d	-0.30	64.30 (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포용은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는 사회포용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홍성군, 청양군, 공주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사회포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포용이 양호한 2개 지역은 사회포용이 개선되고 있고, 사회포용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주시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 7] 최근 5년간 지역별 사회포용의 변화(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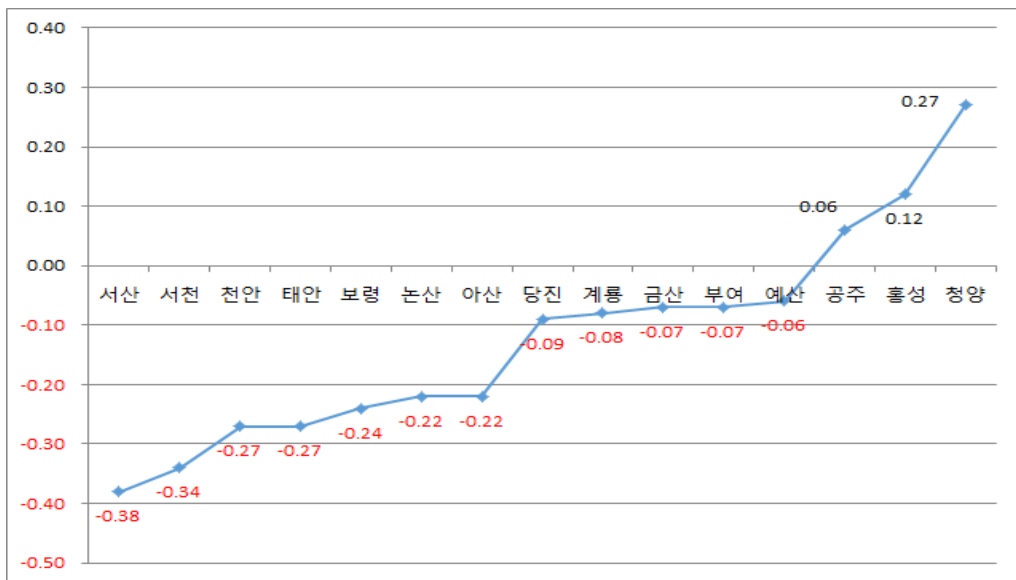
2) 지역별 내부포용의 실태와 변화

충남의 지역별 내부포용 실태를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예산군이 3.9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양군과 홍성군이 각각 3.81, 부여군 3.69, 금산군 3.66, 서천군 3.6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천군 3.62, 공주시 3.55, 계룡시 3.51, 논산시 3.48, 보령시 3.46, 태안군 3.44 순이다. 반면, 서산시(3.28), 천안시(3.32), 아산시(3.37), 당진시(3.38)는 상대적으로 내부포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지역별 내부포용 실태와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F값(prob)
전체	3.66 ^a	3.67 ^a	3.63 ^b	3.60 ^c	3.52 ^d	-0.14	144.58 (0.0001)
천안시	3.59 ^a	3.45 ^c	3.52 ^b	3.49 ^{bc}	3.32 ^d	-0.27	60.17 (0.0001)
공주시	3.49 ^b	3.55 ^a	3.52 ^{ab}	3.46 ^b	3.55 ^a	0.06	4.20 (0.0021)
보령시	3.70 ^a	3.54 ^c	3.60 ^b	3.57 ^{bc}	3.46 ^d	-0.24	22.98 (0.0001)
아산시	3.59 ^a	3.60 ^a	3.51 ^b	3.62 ^a	3.37 ^c	-0.22	48.34 (0.0001)
서산시	3.66 ^a	3.56 ^b	3.51 ^b	3.45 ^c	3.28 ^d	-0.38	65.76 (0.0001)
논산시	3.70 ^{bc}	3.81 ^a	3.67 ^c	3.75 ^b	3.48 ^d	-0.22	42.94 (0.0001)
계룡시	3.59 ^b	3.64 ^a	3.59 ^b	3.55 ^{bc}	3.51 ^c	-0.08	6.25 (0.0001)
당진시	3.47 ^d	3.76 ^a	3.64 ^b	3.56 ^c	3.38 ^e	-0.09	62.18 (0.0001)
금산군	3.73 ^b	3.62 ^{cd}	3.89 ^a	3.60 ^d	3.66 ^c	-0.07	35.21 (0.0001)
부여군	3.76 ^a	3.80 ^a	3.52 ^c	3.79 ^a	3.69 ^b	-0.07	29.74 (0.0001)
서천군	3.96 ^a	3.80 ^b	3.81 ^b	3.68 ^c	3.62 ^d	-0.34	40.33 (0.0001)
청양군	3.54 ^d	3.59 ^{cd}	3.62 ^{bc}	3.66 ^b	3.81 ^a	0.27	31.52 (0.0001)
홍성군	3.69 ^c	4.03 ^a	3.83 ^b	3.52 ^d	3.81 ^b	0.12	90.72 (0.0001)
예산군	3.98 ^a	3.76 ^c	3.80 ^c	3.86 ^b	3.92 ^a	-0.06	17.59 (0.0001)
태안군	3.71 ^b	3.78 ^a	3.54 ^c	3.58 ^c	3.44 ^d	-0.27	45.89 (0.0001)

한편 2017년 이후 내부포용이 개선된 지역은 청양군(0.27), 홍성군(0.12), 공주시(0.06)가 유일하다. 이는 사회포용이 증가한 3곳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12개 시군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내부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내부포용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서산시로 0.38 감소하였다. 그리고 서천군은 0.34, 태안군과 천안시는 각각 0.27, 보령시는 0.24, 논산시와 아산시 각각 0.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시(-0.09), 계룡시(-0.08), 부여군과 금산군(각각 -0.07), 공주시(-0.06)는 상대적으로 내부포용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포용이 증가한 3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은 모두 내부포용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최근 5년간 지역별 내부포용의 변화(2017~202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내부포용은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서산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는 내부포용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포용과 동일하게 예산군과 홍성군 같이 내부포용이 높은 것은 최근 5년간 내부포용이 증가하는 반면, 내부포용이 낮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공주시만 내부포용이 보통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내부포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지역별 외부포용의 실태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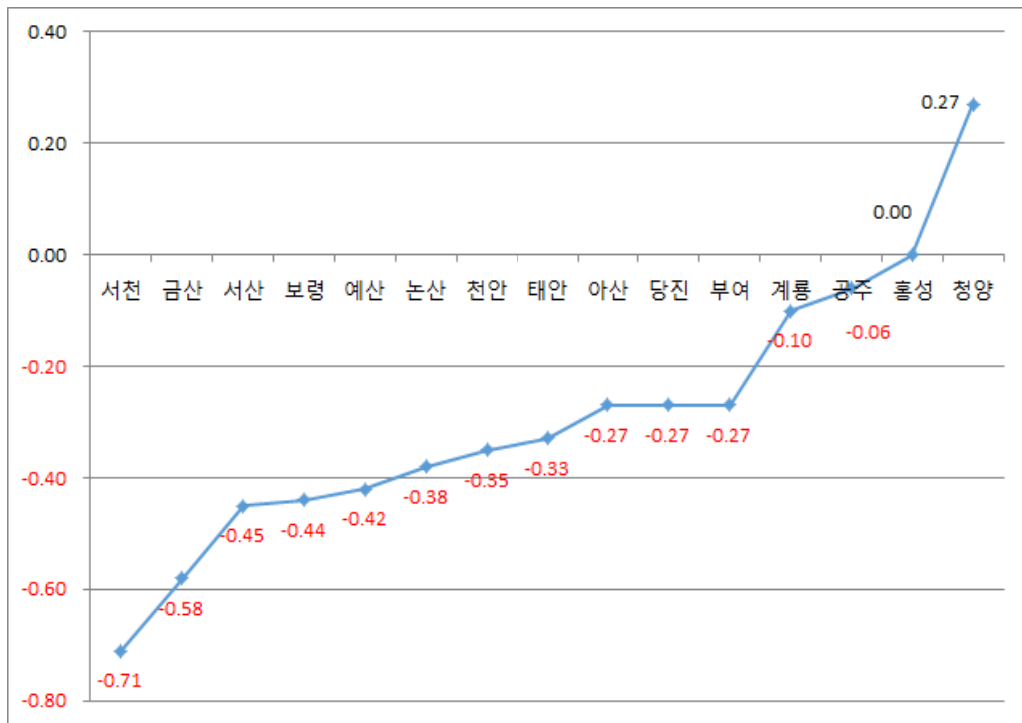
충남의 지역별 외부포용 실태를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홍성군이 3.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예산군이 3.28, 계룡시 3.27, 부여군 3.23이다. 외부포용은 사회포용과 내부포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공주시 3.15, 청양군 3.09, 태안군 3.00, 논산시 2.98, 보령시 2.97, 서천군 2.95 순이다. 반면 서산시(2.74), 당진시(2.79), 천안시(2.86), 금산군(2.95)은 상대적으로 외부포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7년 이후 외부포용이 개선된 지역은 청양군(0.27)이 유일하다. 그리고 홍성군은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 13개 지역은 모두 외부포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외부포용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태안군으로 0.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예산군은 0.58, 홍성군은 0.45, 청양군은 0.44, 서천군은 0.42, 부여군은 0.38, 금산군은 0.35, 당진시는 0.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령시(-0.06), 아산시(-0.10), 서산시, 계룡시, 논산시(각각-0.27)는 상대적으로 외부포용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포용은 사회포용 및 내부포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감소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부포용은 청양군과 홍성군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포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외부포용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12〉 지역별 외부포용 실태와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F값(prob)
전체	3.30 ^a	3.25 ^b	3.12 ^c	3.05 ^d	3.01 ^e	-0.29	551.94 (0.0001)
천안시	3.21 ^a	3.02 ^b	3.06 ^b	2.92 ^c	2.86 ^d	-0.35	91.79 (0.0001)
공주시	3.21 ^a	3.19 ^{ab}	3.11 ^{cd}	3.05 ^d	3.15 ^{bc}	-0.06	8.64 (0.0001)
보령시	3.41 ^a	3.09 ^b	3.01 ^{cd}	3.05 ^{bc}	2.97 ^d	-0.44	87.96 (0.0001)
아산시	3.29 ^a	3.21 ^b	3.06 ^c	3.21 ^b	3.02 ^c	-0.27	47.10 (0.0001)
서산시	3.19 ^a	2.95 ^b	2.94 ^b	2.81 ^c	2.74 ^d	-0.45	84.94 (0.0001)
논산시	3.3 ^{6b}	3.4 ^{7a}	3.25 ^c	3.11 ^d	2.98 ^e	-0.38	82.05 (0.0001)
계룡시	3.37 ^a	3.41 ^a	3.29 ^b	3.30 ^b	3.27 ^b	-0.10	10.03 (0.0001)
당진시	3.06 ^b	3.26 ^a	2.86 ^c	3.02 ^b	2.79 ^d	-0.27	90.53 (0.0001)
금산군	3.47 ^a	3.15 ^c	3.31 ^b	2.88 ^d	2.89 ^d	-0.58	119.60 (0.0001)
부여군	3.50 ^a	3.50 ^a	3.06 ^c	3.18 ^b	3.23 ^b	-0.27	64.40 (0.0001)
서천군	3.66 ^a	3.34 ^b	3.31 ^b	2.92 ^c	2.95 ^c	-0.71	173.43 (0.0001)
청양군	2.82 ^c	2.92 ^b	2.92 ^b	2.76 ^d	3.09 ^a	0.27	45.34 (0.0001)
홍성군	3.31 ^c	3.62 ^a	3.39 ^b	3.19 ^d	3.31 ^c	0.00	56.47 (0.0001)
예산군	3.70 ^a	3.49 ^b	3.34 ^{cd}	3.39 ^c	3.28 ^d	-0.42	42.74 (0.0001)
태안군	3.33 ^b	3.39 ^a	3.06 ^c	3.06 ^c	3.00 ^c	-0.33	63.71 (0.0001)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외부포용은 홍성군과 예산군, 계룡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반대로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 금산군, 서천군, 보령시, 논산시는 외부포용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사회포용과 내부포용이 개선된 청양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외부포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홍성군은 외부포용이 2017년 이후 개선, 악화, 회복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부포용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 최근 5년간 지역별 외부포용의 변화(2017~2021)

4) 분석결과의 종합

2016년~2021 간 충남의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의 실태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의 사회포용은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홍성군, 청양군, 공주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은 최근 5년간 사회포용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남의 내부포용은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서산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양군, 홍성군, 공주시를 제외한 시군은 모두 최근 5년간 내부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남의 외부포용은 홍성군, 예산군, 계룡시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 금산군, 서천군, 보령시, 논산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양군과 홍성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 외부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의 사회포용과 내부포용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최근 5년간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부포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더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의 시군별 사회포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포용의 향상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인구증가, 경제성장, 사회통합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우선 인구증가에서는 사회포용이 인구와 순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서는 사회포용이 고용과 GRDP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도록 한다. 끝으로 사회통합에서는 사회포용이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사회안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1) 사회포용과 인구증가의 관계

인구 측면에서는 사회포용이 인구와 순이동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증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1과 모형2는 모형적합성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회포용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1에서는 사회포용이 인구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2에서도 내부 및 외부포용이 인구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인구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순이동 증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1과 모형2의 모형적합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2의 설명력은 0.911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모형1에 의하면, 사회포용은 순이동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모형2에서는 내부포용은 순이동 증가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리고 외부포용은 순이동 증가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연도 인구와 전 연도 사업체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했고, 이들 변수가 순이동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즉 내부포용이 높을수록 순이동은 감소하는 반면, 외부포용이 높을수록 순이동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최근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은 특정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외부포용이 높을수록 순이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 개별 시군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결과이다. 한편 내부포용은 오히려 순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이 외부로 유출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인구사회학에서 사회적 약자는 특정 지역, 특히 농촌 혹은 구도심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내부포용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인구이동의 역동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은 인구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내부포용은 순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그리고 외부포용은 순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순이동의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 순이동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구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포용은 사회적 인구증가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부포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경우, 오히려 순이동을 감소시켜 인구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인구증가

구분		인구증가		순이동 증가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사회포용		-2.056 (-1.52)		174.0449 (0.44)	
	내부포용		-2.520 (-1.16)		1322.698 (-2.26)
	외부포용		0.187 (0.11)		1202.9 (2.60)
ln(전연도 인구)		-1.539 (-0.19)	-3.734 (-0.42)	127.0156 (0.05)	-2670.423 (-0.95)
ln(전연도 사업체수)		-1.755 (-0.42)	-0.852 (-0.19)	578.7447 (0.45)	1226.166 (1.03)
상수		140.134 (1.30)	158.769 (1.42)	-7101.836 (-0.20)	2009.35 (0.57)
관측 수		75	75	60	60
지역 수		15	15	12	12
모형 적합도	F값 (prob)	0.93 (0.4346)	0.78 (0.5444)	0.09 (0.9628)	1.77 (0.1529)
	R^2	0.0464	0.0526	0.0062	0.1383

2) 사회포용과 경제성장의 관계

경제 측면에서는 사회포용이 고용과 GR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용 증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1과 모형2는 통계적으로 양호하고 모형의 설명력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1과 모형2에 의하면, 사회포용과 내부 및 외부포용은 고용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RDP 증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1과 모형2에 의하면, F값과 유의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ρ 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1에 의하면, 사회포용이 GRDP 증가에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2에서는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이 GRDP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우리나라가 아직 포용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인식·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 외국에서 사회포용, 특히 이주자와 LGBT 등에 대한 사회포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과 논의를 추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외부포용을 어떻게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경제성장

구분		ln(고용 증가)		ln(GRDP 증가)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사회포용		-2.092 (-1.52)	-	6.329 (2.41)	-
	내부포용	-	-0.024 (-0.01)	-	6.143 (0.87)
	외부포용	-	-1.746 (-1.09)	-	0.613 (0.11)
ln(전연도 인구)		-13.032 (-1.47)	-10.581 (-1.07)	-18.667 (-0.77)	-15.180 (-0.57)
ln(전연도 사업체수)		5.159 (1.11)	3.787 (0.71)	2.629 (0.19)	-2.383 (-0.42)
상수		118.474 (1.17)	100.927 (0.95)	181.853 (0.63)	184.241 (0.62)
관측 수		55	55	55	55
지역 수		15	15	15	15
모형 적합도	F값 (prob)	4.20 (0.0118)	3.18 (0.0247)	2.34 (0.1212)	1.65 (0.2264)
	R^2	0.2540	0.2609	0.3504	0.3544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포용은 고용 증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GRDP 증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은 고용과 GRDP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포용이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 점은 내부 및 외부포용이 고용과 GRDP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을 경제성장과 관련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충남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사회포용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부 및 외부포용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고 이들이 사회적 참여로 인해 해당 지역의 고용과 GRDP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회포용과 사회통합의 관계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그리고 사회안전 개선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포용, 내부 및 외부포용이 이들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첫째, 공동체의식 개선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1과 모형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1에서는 사회포용이 공동체의식 개선에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2에서는 내부포용이 공동체의식 개선에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포용과 내부포용은 공동체의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포용은 공동체의식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포용이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공동체의식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체의식 제고가 요구되는데, 이 공동체의식은 사회포용을 통해서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15〉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사회통합

구분		공동체의식 개선		범죄안전 개선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사회포용		0.875 (2.53)	-	0.647 (2.10)	-
	내부포용	-	0.962 (1.96)	-	0.060 (0.12)
	외부포용	-	0.028 (0.07)	-	0.517 (1.36)
ln(전연도 인구)		1.946 (0.92)	2.650 (1.18)	-2.388 (-1.27)	-2.870 (-1.42)
ln(전연도 사업체수)		-0.858 (-0.80)	-1.118 (-1.00)	1.980 (2.08)	2.157 (2.16)
상수		-17.620 (-0.64)	-23.992 (-0.85)	7.551 (0.31)	11.895 (0.47)
관측 수		75	75	75	75
지역 수		15	15	15	15
모형 적합도	F값 (prob)	5.35 (0.0026)	4.27 (0.0044)	2.48 (0.0699)	1.95 (0.1151)
	R^2	0.2197	0.2337	0.1156	0.1222
구분		사회안전 개선			
		모형1	모형2		
사회포용		0.612 (1.96)	-		
	내부포용	-	0.524 (1.06)		
	외부포용	-	0.126 (0.33)		
ln(전연도 인구)		-2.197 (-1.16)	-1.919 (-0.94)		
ln(전연도 사업체수)		2.746 (2.85)	2.634 (2.61)		
상수		-1.442 (-0.06)	-3.849 (-0.15)		
관측 수		75	75		
지역 수		15	15		
모형 적합도	F값 (prob)	3.52 (0.0206)	2.64 (0.0434)		
	R^2	0.1563	0.1585		

둘째, 범죄안전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1과 모형2에 의하면, 모형적합성이 다소 낮지만 ρ 값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형1에서는 사회포용이 범죄안전 개선에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2에서는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이 범죄안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포용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의 범죄안전이 개선되어 범죄가 줄어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포용은 범죄발생 등과 같은 사회갈등과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안전 개선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1과 모형2의 모형적합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 의하면, 사회포용이 사회안전 개선에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2에서는 내부포용 및 외부포용이 사회안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포용은 지역사회의 안전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포용은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그리고 사회안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부포용은 공동체의식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포용은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사회안전 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 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외부 포용이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사회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내부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사회안전이 향후 악화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분석결과의 종합

사회포용과 내부 및 외부포용이 인구, 경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회포용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1을 통해 사회포용이 경제 측면의 GRDP 증가, 사회 측면의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그리고 사회안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부 및 외부포용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2를 통해 내부포용은 순이동 증가에 (-)의 영향을, 그리고 외부포용은 순이동 증가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은 경제와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포용은 공동체의식 개선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포용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포용이 인구증가에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포용은 순이동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외부포용이 인구증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내부포용은 순이동을 감소시키고, 공동체의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포용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공동체의식이 개선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지역의 고착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구이동의 역동성이 감소해 결국 순이동이 감소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16〉 분석결과의 종합

구분		모형1	모형2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
인구증가	인구증가			
	순이동 증가		(-)	(+)
경제성장	고용 성장			
	GRDP 성장	(+)		
사회통합	공동체의식 개선	(+)	(+)	
	범죄안전 개선	(+)		
	사회안전 개선	(+)		

5.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은 외부포용 보다 내부포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포용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포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부포용 보다는 외부포용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충남의 사회포용에서 외부포용이 차지하는 요인값이 절대적으로 높았지만, 충남의 외부포용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충남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포용은 인구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의 다수 지역이 최근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외부포용이 순이동을 촉진시키는 반면, 내부포용이 순이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출생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외부포용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내부포용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는 오히려 인구유출을 더 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단적으로 최근 천안에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외국인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외부포용을 통한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유의미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제고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포용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해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포용은 GRDP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포용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사회포용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 및

외부포용이 고용과 GRDP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경제주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경제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이 지역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가 경제에 참여하게 되면, 이들의 새로운 역량이 지역경제에 활용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단순히 배려의 대상이 아닌 자립적인 경제주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사회적 약자가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선행연구의 내용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일치한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내부포용은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포용은 공동체의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포용은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사회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포용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경우 외부포용이 사회포용과 내부포용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향후 이주자에 대한 포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충남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포용을 내부포용에만 치중하게 될 경우,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차이가 더 확대되어 새로운 사회갈등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향후 충남의 사회통합을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포용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외부포용의 개선이 더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외부포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에서 이주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공급방식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의 실태와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사회조사를 사용해 사회포용을 개념화할 때, 사회포용은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충남의 경우 내부포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포용이고, 외부포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남의 사회포용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포용, 내부포용 및 외부포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으로 포용이 낮은 외부포용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포용의 악화는 홍성군과 청양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충남의 사회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포용은 인구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부포용은 순이동을 감소시키지만, 공동체의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외부포용은 순이동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 충남의 사회포용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이는 15개 시군에서 모두 동일하다. 충남의 사회포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포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포용 중에서 외부포용이 가장 낮고, 외부포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포용 정책에서 외부포용이 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향후 사회포용을 측정할 때, 외부포용을 보다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외부포용이 순이동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내부포용이 순이동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최근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순이동은 인구증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포용을 증진해 사회적 인구증가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내부포용은 순이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포용은 GR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충남의 15개 시군은 대부분 최근 5년간 사회포용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인적자원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약자가 경제주체로 정상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경제분야의 개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포용은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포용만이 공동체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사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사회조사를 활용해 사회포용을 파악하였다. 충남사회조사에서는 개별 응답자의 포용이 아닌 해당 지역의 포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사회자본이 더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에 비해 사회포용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충남사회조사가 개인의 특성을 배제한 해당 지역의 포용을 측정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응답을 통해 사회포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포용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의 종속변수는 2차 자료이지만, 사회포용의 독립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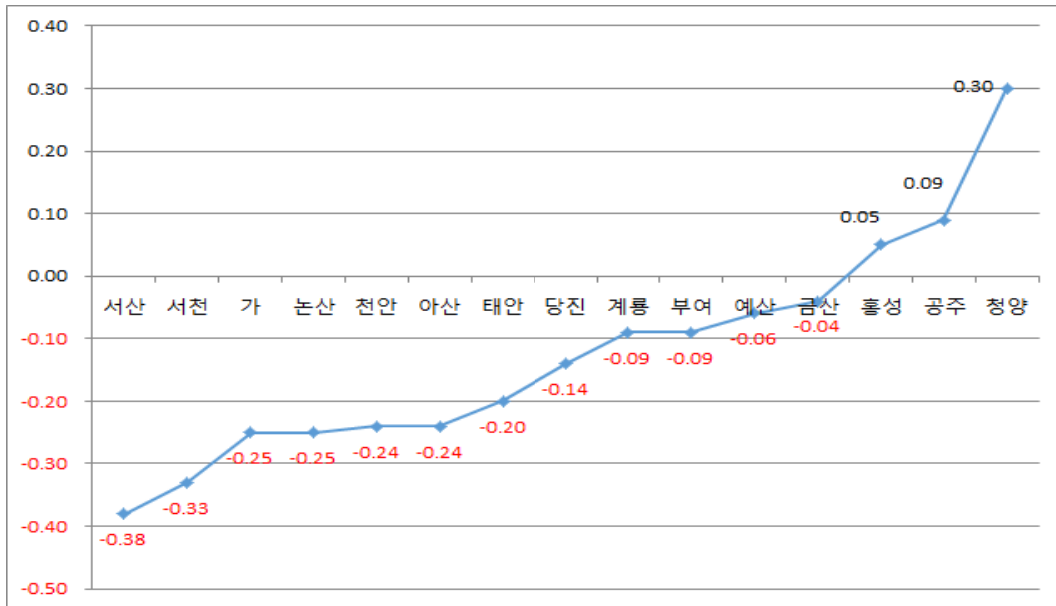
1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1차 자료를 연도별, 시군별로 가공하여 지역발전의 2차 자료와 통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포용의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충남의 사회포용이 낮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외부포용이 인구의 순이동을 증진시키고, 사회포용이 GRDP와 사회통합을 증진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포용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포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사회포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충남의 사회포용 정책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사회포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내부포용과 외부포용 중 어떤 포용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 록

〈부표 1〉 지역별 여성의 포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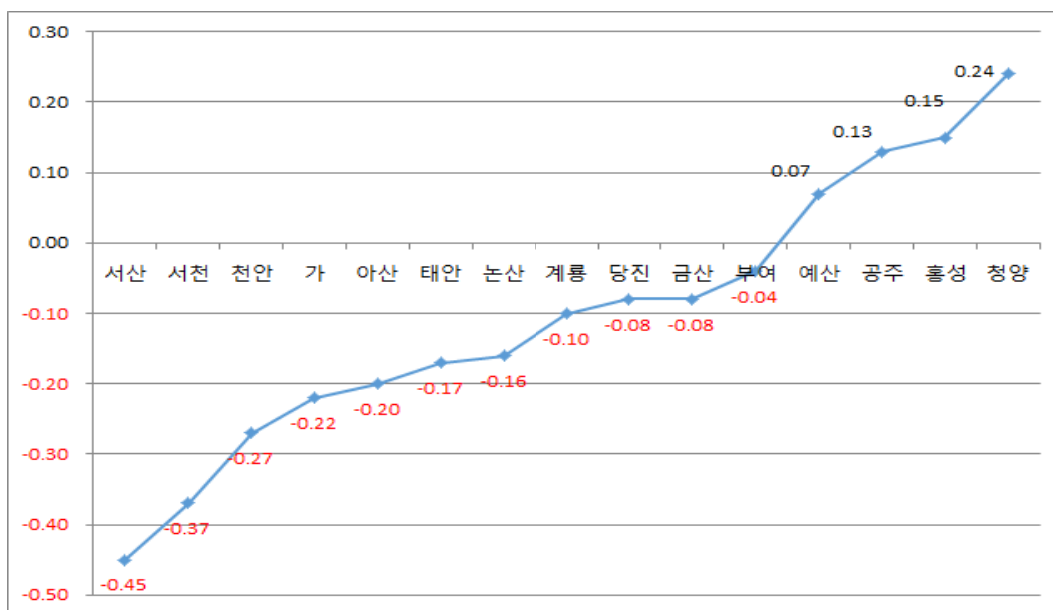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전체	3.65	3.67	3.61	3.59	3.52	-0.13
천안시	3.62	3.50	3.55	3.54	3.38	-0.24
공주시	3.47	3.55	3.46	3.44	3.56	0.09
보령시	3.69	3.51	3.55	3.51	3.44	-0.25
아산시	3.61	3.61	3.53	3.58	3.37	-0.24
서산시	3.66	3.62	3.45	3.45	3.28	-0.38
논산시	3.68	3.84	3.65	3.70	3.43	-0.25
계룡시	3.58	3.58	3.57	3.52	3.49	-0.09
당진시	3.47	3.74	3.57	3.57	3.33	-0.14
금산군	3.73	3.59	3.92	3.60	3.69	-0.04
부여군	3.76	3.82	3.48	3.77	3.67	-0.09
서천군	3.95	3.81	3.83	3.70	3.62	-0.33
청양군	3.49	3.57	3.57	3.67	3.79	0.30
홍성군	3.72	3.99	3.77	3.49	3.77	0.05
예산군	3.95	3.75	3.79	3.89	3.89	-0.06
태안군	3.66	3.79	3.51	3.55	3.46	-0.20



[부도 1] 최근 5년간 여성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부표 2〉 지역별 아동·청소년 포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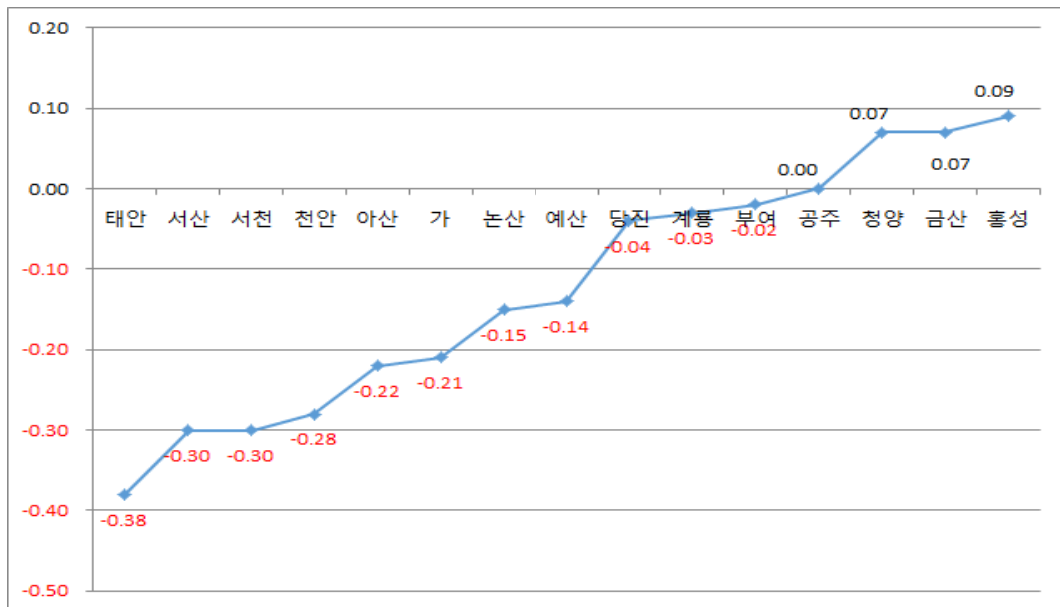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전체	3.66	3.69	3.66	3.62	3.54	-0.12
천안시	3.62	3.55	3.59	3.58	3.35	-0.27
공주시	3.44	3.55	3.58	3.51	3.57	0.13
보령시	3.68	3.53	3.54	3.52	3.46	-0.22
아산시	3.60	3.61	3.53	3.60	3.40	-0.20
서산시	3.75	3.60	3.58	3.49	3.30	-0.45
논산시	3.67	3.82	3.74	3.77	3.51	-0.16
계룡시	3.58	3.62	3.59	3.53	3.48	-0.10
당진시	3.49	3.74	3.60	3.59	3.41	-0.08
금산군	3.72	3.65	3.88	3.64	3.64	-0.08
부여군	3.73	3.76	3.55	3.77	3.69	-0.04
서천군	3.97	3.83	3.89	3.68	3.60	-0.37
청양군	3.62	3.73	3.76	3.82	3.86	0.24
홍성군	3.61	4.04	3.78	3.47	3.76	0.15
예산군	3.96	3.72	3.80	3.83	4.03	0.07
태안군	3.67	3.74	3.64	3.62	3.50	-0.17



[부도 2]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부표 3〉 지역별 노인 포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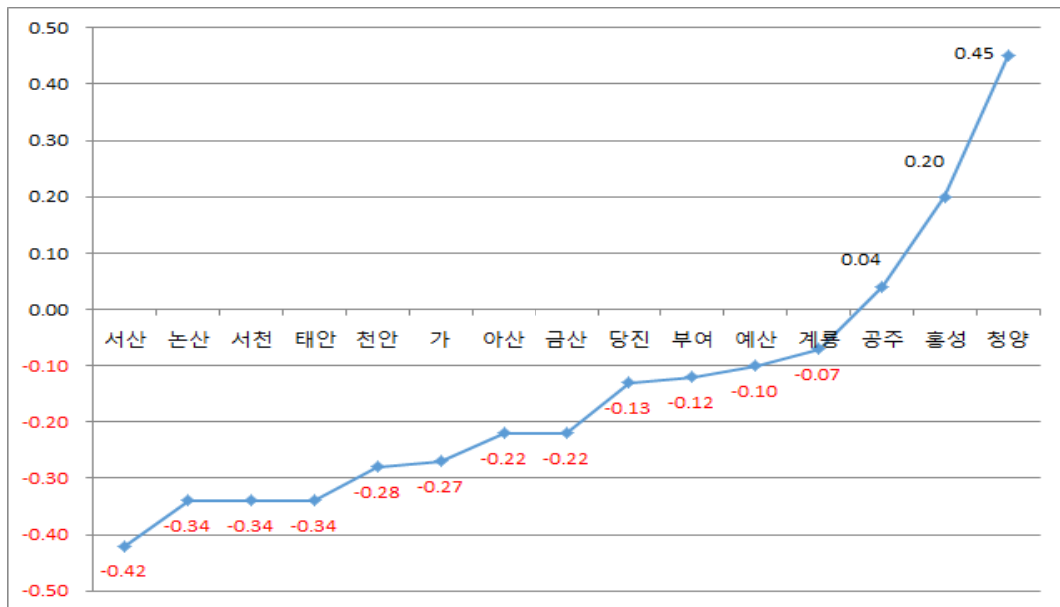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전체	3.77	3.81	3.76	3.73	3.65	-0.12
천안시	3.66	3.50	3.57	3.55	3.38	-0.28
공주시	3.64	3.72	3.63	3.56	3.64	0.00
보령시	3.78	3.70	3.80	3.71	3.57	-0.21
아산시	3.67	3.74	3.63	3.69	3.45	-0.22
서산시	3.72	3.73	3.67	3.62	3.42	-0.30
논산시	3.81	3.89	3.73	3.89	3.66	-0.15
계룡시	3.66	3.77	3.67	3.65	3.63	-0.03
당진시	3.55	3.90	3.80	3.66	3.51	-0.04
금산군	3.84	3.77	4.06	3.72	3.91	0.07
부여군	3.86	4.00	3.63	3.94	3.84	-0.02
서천군	4.05	3.90	3.94	3.86	3.75	-0.30
청양군	3.97	3.85	3.93	3.90	4.04	0.07
홍성군	3.85	4.21	3.96	3.64	3.94	0.09
예산군	4.13	3.88	3.96	3.97	3.99	-0.14
태안군	3.89	4.00	3.71	3.72	3.51	-0.38



[부도 3] 최근 5년간 노인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부표 4〉 지역별 장애인 포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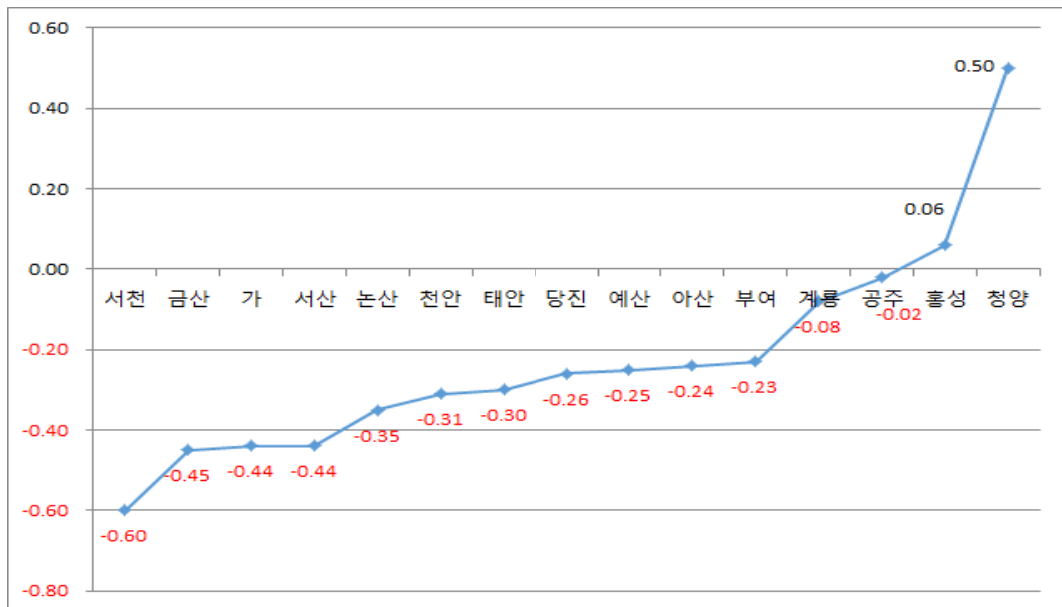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전체	3.54	3.51	3.48	3.47	3.39	-0.15
천안시	3.45	3.26	3.39	3.29	3.17	-0.28
공주시	3.39	3.39	3.40	3.34	3.43	0.04
보령시	3.64	3.44	3.52	3.53	3.37	-0.27
아산시	3.50	3.45	3.36	3.61	3.28	-0.22
서산시	3.52	3.27	3.36	3.25	3.10	-0.42
논산시	3.66	3.68	3.57	3.66	3.32	-0.34
계룡시	3.53	3.60	3.52	3.51	3.46	-0.07
당진시	3.38	3.65	3.57	3.42	3.25	-0.13
금산군	3.63	3.49	3.69	3.43	3.41	-0.22
부여군	3.70	3.64	3.41	3.69	3.58	-0.12
서천군	3.87	3.66	3.59	3.48	3.53	-0.34
청양군	3.09	3.20	3.21	3.25	3.54	0.45
홍성군	3.57	3.89	3.80	3.49	3.77	0.20
예산군	3.88	3.68	3.65	3.77	3.78	-0.10
태안군	3.64	3.57	3.32	3.43	3.30	-0.34



[부도 4] 최근 5년간 장애인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부표 5〉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포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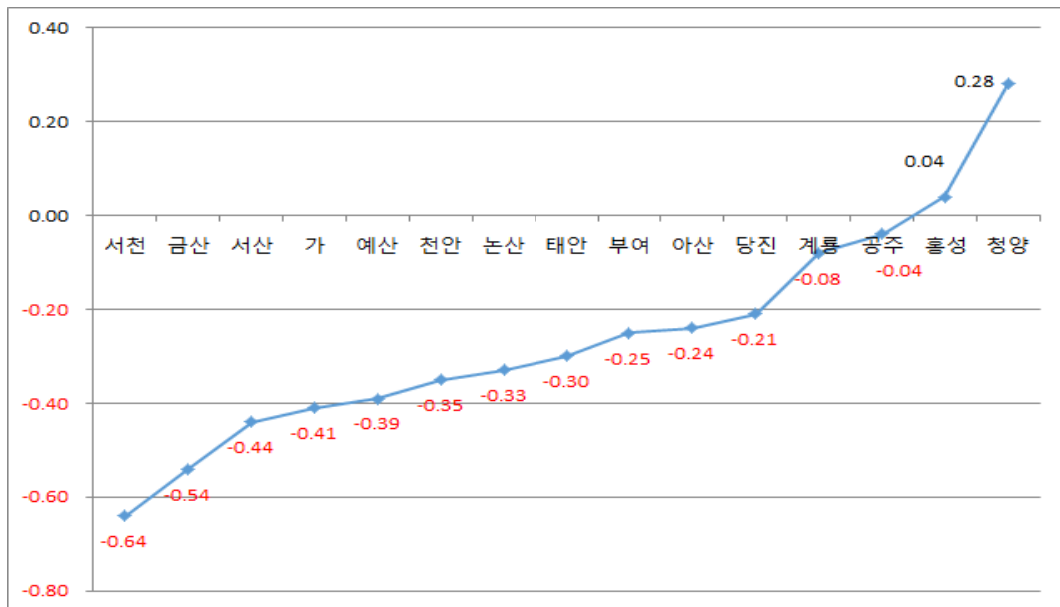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전체	3.26	3.21	3.07	3.04	3.03	-0.23
천안시	3.45	3.26	3.39	3.29	3.17	-0.28
공주시	3.39	3.39	3.40	3.34	3.43	0.04
보령시	3.64	3.44	3.52	3.53	3.37	-0.27
아산시	3.50	3.45	3.36	3.61	3.28	-0.22
서산시	3.52	3.27	3.36	3.25	3.10	-0.42
논산시	3.66	3.68	3.57	3.66	3.32	-0.34
계룡시	3.53	3.60	3.52	3.51	3.46	-0.07
당진시	3.38	3.65	3.57	3.42	3.25	-0.13
금산군	3.63	3.49	3.69	3.43	3.41	-0.22
부여군	3.70	3.64	3.41	3.69	3.58	-0.12
서천군	3.87	3.66	3.59	3.48	3.53	-0.34
청양군	3.09	3.20	3.21	3.25	3.54	0.45
홍성군	3.57	3.89	3.80	3.49	3.77	0.20
예산군	3.88	3.68	3.65	3.77	3.78	-0.10
태안군	3.64	3.57	3.32	3.43	3.30	-0.34



[부도 5] 최근 5년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부표 6〉 지역별 결혼이주민 포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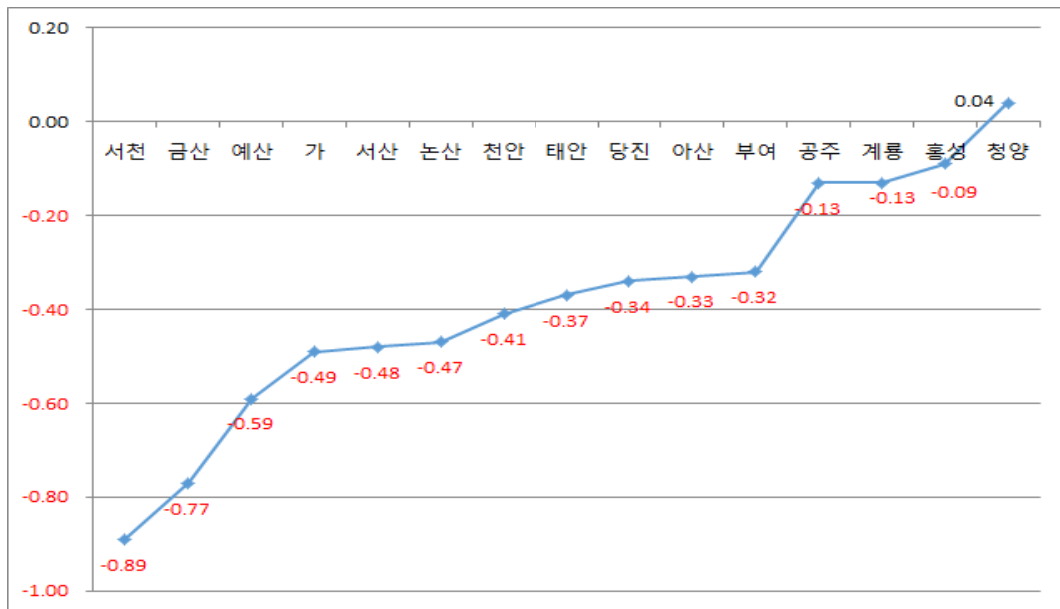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전체	3.32	3.27	3.16	3.09	3.06	-0.26
천안시	3.23	3.04	3.10	2.94	2.88	-0.35
공주시	3.22	3.20	3.14	3.09	3.18	-0.04
보령시	3.42	3.09	3.05	3.07	3.01	-0.41
아산시	3.29	3.23	3.07	3.22	3.05	-0.24
서산시	3.21	2.96	3.00	2.87	2.77	-0.44
논산시	3.36	3.47	3.29	3.17	3.03	-0.33
계룡시	3.37	3.42	3.32	3.32	3.29	-0.08
당진시	3.07	3.31	2.90	3.07	2.86	-0.21
금산군	3.50	3.17	3.36	2.93	2.96	-0.54
부여군	3.51	3.51	3.09	3.21	3.26	-0.25
서천군	3.68	3.35	3.33	2.98	3.04	-0.64
청양군	2.91	2.98	3.02	2.88	3.19	0.28
홍성군	3.32	3.64	3.40	3.20	3.36	0.04
예산군	3.74	3.50	3.41	3.44	3.35	-0.39
태안군	3.35	3.42	3.11	3.08	3.05	-0.30



[부도 6] 최근 5년간 결혼이주민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부표 7〉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포용 수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전체	3.32	3.27	3.13	3.03	2.94	-0.38
천안시	3.24	3.06	3.10	2.95	2.83	-0.41
공주시	3.24	3.19	3.11	3.05	3.11	-0.13
보령시	3.41	3.11	3.03	3.01	2.92	-0.49
아산시	3.30	3.24	3.08	3.19	2.97	-0.33
서산시	3.22	2.96	2.99	2.80	2.74	-0.48
논산시	3.36	3.50	3.25	3.07	2.89	-0.47
계룡시	3.38	3.42	3.28	3.27	3.25	-0.13
당진시	3.08	3.25	2.84	2.98	2.74	-0.34
금산군	3.50	3.17	3.33	2.78	2.73	-0.77
부여군	3.50	3.51	3.08	3.14	3.18	-0.32
서천군	3.68	3.35	3.28	2.83	2.79	-0.89
청양군	2.88	2.98	2.97	2.70	2.92	0.04
홍성군	3.34	3.62	3.39	3.20	3.25	-0.09
예산군	3.71	3.54	3.31	3.39	3.12	-0.59
태안군	3.33	3.43	3.06	3.06	2.96	-0.37



[부도 7]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의 변화(2017~2021)

참고문헌

- 권연화외(2021),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 인식 및 포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 제110권.
- 김현호(2019),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형국(1991),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박영사.
- 박건영외(2020), “강원지역 포용성장 현황과 지역혁신성장에 대한 연구”, 한국사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 박수형(2010), “국제노동동향: 2010년 유럽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의 해”,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
- 박인권(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제51권.
- 박인권(2018),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공간과 사회, 제28권 제2호.
- 신유리외(2013),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3호.
- 안성조외(2019), “대구경북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포용성 확보 방안”, 대구경북연구, 제18권 제2호.
- 오영훈외(2010), 취약계층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사회통합효과 분석(I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우선희(2020), “사회적 포용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제280권.
- 유란회외(2020), “국가와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시키는가?”, 한국행정학보, 제54권 제2호.
- 은재호외(2019), 한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탐색: 포용국가 이론과 쟁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길태역(2002),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 이성근외(2013), 지역개발론, 서울:집현재.
- 이승종(1997), “한국 정치사회의 전개와 시민성의 과제”, 조영달 편, 한국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인원외(2020),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30권 제2호.
- 장용석외(2020),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46권 제5호.
- 전영상외(2014), “사회통합요인과 지역사회갈등의 영향력과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 충주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 정책기획위원회(2018).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서울: 정책 기획위원회.
- 정해석외(2017),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7권 제4호.
- 조권중(2017), ‘포용도시 서울’ 성과와 과제, 서울연구원 Issue Paper. 서울연구원.
- 조순옥외(2019),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의 사회적 포용 관점에서의 성과 탐색”, 평생교육·HRD연구, 제15권 4호.
- Badgett, M. V. et al.(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LGBT inclusion and economic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120,
- Bernard, P.(1999), “La Cohésion Sociale: Critique Dialectique D’un quasi-concept”, Translated in Ottawa by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as Kiscussion Paper No. F109. Lien Social et Politiques-RIAC, 41.
- Cameron, C. (2006). Geographies of welfare and exclusion: Social inclusion and excep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3).
- Carter, B.(2015), Benefits to society of an inclusive societies approach, Helpdesk Research Report, GSDRC.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3). The Role of eGovernment for Europe's Future. Brussels.
- Deloitte(2013), Waiter, is that inclusion in my soup? A new recipe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 Deloitte(2019), The economic benefits of improving social inclusion.
- Dörffel, C., et al.(2020), “What is Inclusive Development?”, Jena Economic Research Paper, No. 015.
- EU(2016), Developing a Regional Inclusive Society Index in the EU, European

- Commission.
- Florida, Richard and Irene Tinagli(2004), Europe in the Creative Age. Europe: DEMOS.
- Florida, Richard(2002), "Bohemia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1).
- Fraser of Allander Institute(2020), Inclusive Growth in Northern Ireland.
- Greenwood, M. J.(2001), "Human Migration: Theory, Models, and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5(4).
- Habermas, J.(2001), Postnational Constellation, Blackwell Publishers Ltd.
<https://doi.org/10.1016/j.worlddev.2019.03.011>
- Jenson, J.(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Ottaw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CPRN Study No. F/03.
-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 Patsios, D.(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Institute for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Bristol.
- McKinley, T.(2010), "Inclusive Growth Criteria and Indicators", ADB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No. 13.
- OECD(2019). Future-ready adult learning systems: Korea.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ducation/getting-skills-right-future-re>
- O'Reilly, D. G.(2005). Social Inclusion: a Philosophical Anthropology. Politics, 25(2).
- Piliavin, J., Dovidio, J., Gaertner, S., & R. Clark,(1981), Emergency Intervention, NY: Academic.
- Putnam, Robert D.(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atnawati, K.(2020), " The impact of financial inclusion on economic growth,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 Aisa",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7(10).
- Rimmerman, A.(2013),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lver, H.(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r Review*, No. 133.
- Talò, C., Mannarini, T., & A. Rochira(2014),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 meta-analytic review,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1).
- Thomassen, L.(2006), "The Inclusion of The other?", *Political Theory*, 34(4).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16),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2016: Leaving no one Behind: The Imperative of Inclusive Development, United Nations.

■ 집 필 자 ■

연구책임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도묘연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전략연구 2022-06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글쓴이 · 이관률 · 도묘연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2년 12월 31일 / 발행 · 202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59(대표)

ISBN · 978-89-6124-613-2

<http://www.cni.re.kr>

© 2022.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An abstract network diagram composed of numerous red dots of varying sizes connected by thin red lines. The dots are distributed across the page, with a higher density in the lower right quadrant, creating a complex web-like structure.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613-2